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중 교역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제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조선

2012년 2월

한·중 교역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지도교수 이 용 완

조 선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2 월

조 선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 년 2 월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 제2장 한·중 교역현황 | 3 |
| 제1절 한국의 대중국 교역현황 | 3 |
| 1. 한국의 교역현황 | 3 |
| 2. 한국의 대중국 교역현황 | 3 |
| 제2절 중국의 대한국 교역현황 | 6 |
| 1. 중국의 교역현황 | 6 |
| 2. 중국의 대한국 교역현황 | 8 |
| 제3장 한·중 교역구조변화의 분석 | 12 |
| 제1절 한·중 교역구조 | 12 |
| 1. 한국의 대중교역 구조 | 12 |
| 2. 중국의 대한교역 구조 | 15 |
| 제2절 한·중 교역구조 현황 | 17 |
| 1. 한·중 교역구조 변화의 주요내용 및 원인 | 17 |
| 2. 한·중 교역관계의 변화 | 20 |

| | |
|-----------------------------------|-----------|
| 3. 시사점 | 28 |
| 제3절 한·중 교역 상품구조 분석 | 31 |
| 1.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상품구조 분석 | 31 |
| 2.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상품구조 분석 | 33 |
| 제4절 한·중 수출입시장 구조 분석 | 35 |
| 1. 한국 수출입시장 점유율 분석 | 35 |
| 2. 중국 수출입시장 점유율 분석 | 38 |
| 3. 시사점 | 41 |
| 제4장 한·중 교역 분쟁현황 및 사례 | 43 |
| 제1절 한·중 교역 분쟁현황과 원인 | 43 |
| 1. 한·중 교역분쟁현황 | 43 |
| 2. 한·중 교역분쟁원인 | 44 |
| 제2절 한·중 교역 분쟁 사례 분석 | 46 |
| 1. 한·중 농산물 분쟁사례 | 46 |
| 2. 한·중 간 반덤핑사례 | 51 |
| 3. 지적재산권 사례 | 59 |
| 4. 자동차 사례 | 62 |
| 5. 세이프가드 사례 | 65 |
| 제3절 한·중 교역분쟁사례의 시사점 | 67 |
| 1. 중국소비시장의 변화추이 | 67 |
| 2. 고부가가치 수출 전환 노력 | 67 |
| 3. 수출선 다변화 등 포괄적 수출전략의 수립 | 68 |

| | |
|-------------------------------|----|
| 제5장 한·중 교역분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69 |
| 제1절 한·중 교역분쟁의 문제점 | 69 |
| 1. 한·중 교역 불균형의 문제점 | 69 |
| 2. 한·중 교역장벽 문제점 | 72 |
| 3. 한·중 투자 상의 문제점 | 78 |
| 제2절 한·중 교역분쟁의 대응방안 | 80 |
| 1. 중국의 대응방안 | 80 |
| 2. 한국의 대응방안 | 82 |
| 3. 한·중 공동협력 대응방안 | 83 |
| 제6장 결론 | 89 |
| 참고문헌 | 91 |
| ABSTRACT | 94 |

〈표 목차〉

| | |
|--|----|
| 〈표2-1〉 대중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분포 | 7 |
| 〈표3-1〉 중국의 주요 수출입 상대국 변화 | 12 |
| 〈표3-2〉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 | 13 |
| 〈표3-3〉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 중국 수출 구조 변화 | 14 |
| 〈표3-4〉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 중국 수입 구조 변화 | 14 |
| 〈표3-5〉 기술수준별 대 중국 무역수지 | 15 |
| 〈표3-6〉 중국의 주요 수출입 상대국 변화 | 16 |
| 〈표3-7〉 한·중 간 기술수준별 무역 추이 | 18 |
| 〈표3-8〉 주요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 19 |
| 〈표3-9〉 대중국 10대 수출입 상품변화 | 26 |
| 〈표3-10〉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상품 변화 | 32 |
| 〈표3-11〉 한국의 용도별 대중국 수출구조 변화 | 32 |
| 〈표3-12〉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입상품 변화 | 33 |
| 〈표3-13〉 주요 국/지역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35 |
| 〈표3-14〉 가공단계별 중국의 대한 수입과 한국의 시장점유율 | 36 |
| 〈표3-15〉 기술수준별 중국의 대한 수입과 한국의 시장점유율 | 36 |
| 〈표3-16〉 제조업 업종별 중국 대한 수입과 한국산 시장점유율 | 37 |
| 〈표3-17〉 주요 국/지역별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37 |
| 〈표3-18〉 가공단계별 한국의 대중 수입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 38 |
| 〈표3-19〉 주요 교역국의 가공단계별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 변화 | 38 |
| 〈표3-20〉 기술수준별 한국의 대중 수입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 39 |
| 〈표3-21〉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변화 | 40 |
| 〈표4-1〉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규제 | 52 |
| 〈표4-2〉 중국의 주요국별 반덤핑규제 현황 | 54 |
| 〈표4-3〉 20대 수출상품 중 대중국 수출의존도 상위 품목 | 56 |
| 〈표4-4〉 한국의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 58 |

| | |
|---------------------------------------|----|
| <표4-5>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 58 |
| <표4-6> 2009년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및 판매국 | 63 |
| <표4-7> QQ와 스파크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 63 |
| <표5-1>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 | 70 |
| <표5-2> 기술수준별 대중국 무역수지 | 70 |
| <표5-3> 중국의 주요 비관세 장벽 유형 | 74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중국을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서 대중국 무역을 통한 대규모 무역흑자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큰 폭의 대중국 무역 흑자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 및 서비스수지 적자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이며 홍콩을 포함하면 실제 대중국 수출의존도 2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역시 2000년 8%에서 2009년에는 17.3%로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대중국 수출은 시장확보측면에서, 대중국 수입은 가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하다.

대중국 수출 중에서 부품소재산업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75%, 수입의 54%를 차지하면서 한국 무역수지 흑자창출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 공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중국에 부품소재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양산체제가 구축되면서 한·중 간 기업내 분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역수입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외국인투자 업체를 중심으로 부품 국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와 철강 등 일부 부품소재는 수입대체 단계에서 수출산업화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대중국 무역흑자는 2005년 233억 달러에서 2006년 209억 달러, 2007년 190억 달러로 감소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수출이 둔화 되면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도 급강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2008년 11.5%

에서 2009년 -22.5%로 감소하였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된 것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중국 기업들이 재고물량 처리를 하면서 급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흑자 창출시장이다. 2009년에는 절하로 인하여 감소세를 보이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규모로 안정세로 전환하였다.

2008년 10월말까지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22.1%로 2006년 이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나 10월 이후 급감, 2009년 상반기 -22.5%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대중국 수입증가율 역시 한국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 2009년 상반기 -35.7%로 급강하였다. 이는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내 공정분업이 활성화되면서 역수입이 크게 증가 하였으나 환율 때문에 기업 내 공정분업도 둔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대중국 무역흑자의 축소가 계속 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간 무역구조 변화의 양상과 그 원인을 양국 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변화가 향후 한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국가통계국, 중국 해관통계 등의 발간자료 및 보고서를 활용하면서 또한 국내외의 논문, 학술지, 정기간행물의 연구논문, 세미나 자료 등 기타 관련 문헌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의 흑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제2장 한·중 교역현황

제1절 한국의 대중국 교역현황

1. 한국의 교역현황

최근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수출의 특징을 보면 국내 수출이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여 수출 부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상반기에 자동차와 무선 통신 기기 등을 제외하고 주요 업종이 수출이 감소세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도 미국, 아시아 등 주요 수출선에 대해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수출부진의 현상적 원인으로 세계경기와 IT 산업 경기 부진 및 주요 제품의 수출 단가 하락, 수입 규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IT 산업 수출이 급감하여 전체 수출 감소액의 61%를 차지하였다. 또 다른 원인으로 구조적인 측면을 들 수 있는데 첫째, 중화학 경공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수출은 수입을 많이 유발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수출구조는 한국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데가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되어 있어 경제성장에 따라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수출시장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제한되고 만성 대일적자 상존, 대미흑자 시현이라는 지역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여 대외통상전략상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

2. 한국의 대중국 교역현황

중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GDP 대비 45%에 달하며 중국의 교역량 중 거의 절반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이 특징인 바, 중국의 경제성장이 외국인 직접투자와 무역의 2가지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금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7.3%를 상회하는 7.8%를 기록, 고속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한·중

간 교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약8.9%가 한국 투자 진출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체와 중국 기업에 중간재로 공급되는 원부자재인 바, 중국의 중간재 제품이 점차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함에 따라 원부자재의 수입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급, 고가,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중국 무역흑자 누계가 330억불을 초과하는 무역불균형 지속과 중국 농촌이 당면한 실업과 궁핍 등 중국 내부 경제시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최근의 마늘 분쟁과 유사한 무역 분쟁이 재발될 가능성이 많은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협의 채널을 활용하고, 국내적으로도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약 80%가 투자 진출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체와 중국 기업에 중간재로 공급되는 원부자재인 바, 중국의 중간재 제품이 점차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함에 따라 원부자재의 수입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한국 투자 진출 업체도 과거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였으나 완제품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저가의 중국산 원부자재 구매가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을 포함, 외국의 대중국 투자 증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원부자재 수출 증가를 초래하나 점차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중국 생산업체 경쟁력 상승과 함께 외국 투자업체가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원부자재를 현지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한국산 수입 원부자재 사용 감소를 초래하였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에 대응하여 월드컵을 계기로 고양된 국가 이미지를 앞세운 일류 제품과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원부자재를 수입사용 중인 한국 투자 진출 업체의 중국내 생산품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아울러 고품질 고부가가치 원부자재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주요 이슈로 거론된 중국 마늘 수입 문제에서와 같이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측은 누계 330억불을 초과하는 무역적자와 실업 및 저소득에 직면하고 있는 자국 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강경 대응, 한국 공산품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국 농산물 분야의 타격이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진행 중인 뉴라운드 농산물 관세화 협의에

따라서는 시장 접근 제한 및 고율 관세 부과로 억제되고 있는 쌀, 참깨, 마늘 등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수년 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인 국내 농업정책의 수립, 외국 농산물 수입에 따른 소비자 이익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과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대기업의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은 정보 부족과 사전 조사 불충분 무계획성 등으로 정책에 실패하여 도산하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 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중국 내 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국내뿐 아니라 중국내 주요 투자 진출 지역에도 설치하여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를 설명하고, 창업시까지 적절하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경우 효과적인 중소기업 진출에 기여할 것이다.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사관, 총영사관과 긴밀히 협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과 중국 농촌이 당면한 실업과 궁핍 등 중국 내부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중국 농산물 수입을 둘러싸고 최근의 마늘 분쟁과 유사한 무역 분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많은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의한 조기의 문제 파악과 함께 중국측과의 사전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국내적으로도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종합적인 농업 국내정책을 수립, 중장기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도 중국 당국에 의한 반덤핑 남발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불공정 관행과 법적인 문제점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중국의 대한국 무역현황

1. 중국의 무역현황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GDP 지수는 2005년까지 1.2% 확대되면서 아울러 무역은 2005년까지 6년 간 수입은 200억 달러까지 증가되고 투자액은 2005년 1,000억 달러로 98년의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MFN 대우의 무차별 향유 및 GSP 혜택으로 수출이 증대할 것이며 대외 무역권의 점진적 개방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됨으로써 신규 사업 개방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대중국 직접투자는 증가될 것이다.

둘째,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점진적 개방 폭이 확대되어 중국 유통산업과 유통구조의 변혁을 유도하여 내수시장 직접투자의 증대와 외자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며 중국 기업체질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 중국 WTO 가입에 대비한 정책 조치에 따른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외국투자기업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며, 금융, 유통, 물류 등 3차 산업이 크게 발전될 것이다.

넷째, 에너지, 원자재, 중간재 등 가격 인상 및 일부 공산품 가격인하에 따라 물가 하락 요소 중 관세율 인하와 외제품 진입 및 국내시장 간에 가격경쟁이 발생될 것이며 물가 상승이 국내가격 자유화가 될 것이며 수입 증대에 따른 인민폐 평가절하 압력도 증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대외 무역경제협작부는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취소하였다. 그 중에 관세장벽, 투자조건, 대외무역권, 유통, 운송 및 관련 서비스, 통신, 인터넷,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및 자산관리, 전문 서비스업, 상업서비스,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청각 부문, 관광 분야도 개방하였다.

1) WTO 가입이후 중국무역환경의 변화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커지면서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중국 역시 주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요구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 외자기업과 내자기업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대외무역관리체제 개혁의 중점을 국내제도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국내산업과 수출산업간의 융합 발전, 그리고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 실현 등 조화와 균형에 중점을 둔 무역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 약속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의 무역관리체도와 정책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제정됨으로써 중국 무역관리의 국제화 또는 글로벌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산업과 대외무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외무역관리체제는 이전의 관리체제와 매우 다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표2-1> 최근 연도별 수출입 현황(1/4분기)

(억 달러 %)

| 구분 | 수 출 | | 수 입 | | 무역수지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2009년(1/4분기) | 2,455.4 | -19.7 | 1,832.0 | -30.9 | 623.4 |
| 2010년(1/4분기) | 3,161.7 | 28.7 | 3,016.8 | 64.6 | 144.9 |
| 2011년(1/4분기) | 3,996.4 | 26.5 | 4,006.6 | 32.6 | -10.2 |

자료원: 중국 해관통계. 2009. p.36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임.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 기업에 중국 시장진출의 기회가 많아짐과 동시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번째,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 두번째, 공업화 도시화가 심화되고 공업증가치 성장속도가 계속 GDP 성장 속도를 넘고 있으며 주요공업제품생산량의 고속증가와 중요기초설비 생산능력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세번째, 시장경제화가 폭넓고 심화되는 방향

으로 진행되며 절대 다수의 상품가격이 시장을 통해서 결정된다. 네번째,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와 좀 더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중국의 대외무역이 지속적으로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다. 1)

2. 중국의 대한국 무역현황

중국 경제는 지난 10여년간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연평균 9%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는 계속되어 2010년 중국의 GDP는 5조 5천억 달러 그리고 수입 규모는 5,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20-30년간 중국 경제는 8%대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미국 일본에 버금가는 시장 규모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인은 무엇보다 대외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대외 무역은 206억 달러에서 20367억 달러로 확대되었는데 이중 수출은 연평균 17%씩 증가하여 세계11대 수출국가로 성장하였다.

한편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면, 총 221,728건에 3,033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중 세계 2위 아시아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한 내륙 지역의 개방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외 개방의 규모와 영역은 부단히 확대되어 경제 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 경제개발구 내륙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

1) 중국의 대한국 직접 투자의 주요 산업 분포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유입은 해외투자유출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2004년부터 투자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연간 9%에 달하는 경제성장과 5,000억불을 넘는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해외기업인수 자금이 풍부한 가운데 최근 중국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중국기업이 과거 저비용생산자

1) 이학규 외, '중국무역론', 두남, 2005. p.35

2) 중국 해관총서, "중국의 대외무역현황", 대외무역출판사, 2005. pp.23-25

나 중국시장 내경쟁자 역할을 뛰어넘어 글로벌 경쟁자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쌍용 자동차, 대규모 프로젝트가 전체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운송용 기계, 전지전자, 화공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유형별로는 대규모 투자 확대에 따라 M&A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10%에 불과하여 양국간 투자의 불균형이 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집단화 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 기업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 장려책에 힘입어 본격적인 해외투자를 시작하였다.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다양한 지역에 해외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한국에 대한 투자에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목적은 선진 기술 취득 및 한국시장 침투에 두어질 것으로 보이며 투자 형태는 M&A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구미 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투자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용도별로는 중간재 및 부품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자본 도입이 중국 시장 접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중국과의 다양한 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 산업 공동화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 자본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면 중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기술과 중국 자본의 결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부품 및 중간재 분야에 대한 투자 도입에 대해서는 대중국 수출과 연계된 전략이 필요하며, 지방 단위의 유치 사절단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상인들에 한해 차별적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2)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업 및 제조업 투자 현황

(1)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업 투자현황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업 투자 항목 중에서 분류를 따라 무역업이 가장 많은데

2,305항이 있고 81%를 차지한다. 다음 식품산업 6.2%를 차지한다. 그 다음 도매업이 5.7%를 차지한다.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 직접투자 중에서 무역업, 식품산업, 도매업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가장 많고 전체 서비스 항목의 91.9%를 차지한다.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 투자 금액의 비중에서 무역업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전체 118,300,000 달러 중의 174,988,000 달러 투자하는데 67.6%를 차지한다. 그리고 식품산업과 도매업의 투자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체 서비스업 투자 금액의 80.3%를 차지한다.

(2) 중국의 대한국 제조업 투자 현황

중국은 한국의 제조업 분류를 따라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직접 투자가 식품산업이다. 옷감과 전자기계는 각자 2위 및 3위를 차지한다.

중국의 대한국 제조업 투자금액의 비중에서 전자업이 제일 많고 전체 제조업의 48.2%를 차지한다. 그다음 기계투자가 전체 제조업 투자액의 10.3%를 차지한다.

서술한 바를 종합하면 지금 중국의 대한국 직접 투자의 분야가 이전의 무역과 식품산업을 위주로 하는 방식을 점점 전기, 방직 복장, 기계 전자 제품 등 경외 가공무역, 식품산업, 여행, 상업 소매, 자문서비스업 등 포함하는 다각도 경영 방식까지 넓혔다. 무역 기업들은 중국의 대한국 직접 투자의 79.9%를 차지하지만 최근의 발전상황을 보면 제조업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 요즘 중국이 점점 '세계 공장' 화가 되어간다. 중국 제조업 수준의 끊임없는 제고에 따라 중국 제조업의 대외 직접 투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대한국 제조업 투자가 더 확대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중국의 대한국 무역의 발전현황

중국 대외무역은 국제교류의 중요한 부분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초기에 중국 대외무역은 규모가 매우 작았다. 중국은 경제성장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이 개혁개방한지 31년째인 지난 2009년에 국내총생산이 49.1조 달러에 달하고 GDP 기준으로 세계1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장하였다. 2005~2009년 4년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8.4%로서 인류 발전 역사에서 있어본 적이 없었던 현상이다. 이런 성과 중에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얻

은 성과는 빼고 싶어도 빼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2010년은 중한 공식수교 20여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
구하고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제3장 한·중 교역구조변화의 분석

제1절 한·중 교역구조

1. 한국의 대중 교역구조

1) 가공단계별 대중 교역 구조

중간재를 수출하여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이를 다시 국내나 미국, EU등 제3 시장에 수출하는 대중국 교역 패턴이 지속되었다. 중간재 수출에서는 반제품의 비중이 감소되었고, 부품 부분품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2002년 이후 대중국 부품 부분품 수출의 급증은 자동차 및 하이테크 전자통신 분야 기업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반제품의 비중 감소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둔화가 크게 작용하였다.³⁾

<표3-1> 대중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분포

(단위: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전품목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1차산품 | 0.5 | 0.5 | 0.6 | 0.6 | 0.7 | 0.8 |
| 중간재 | 76.1 | 76.5 | 79.7 | 82.0 | 79.3 | 76.8 |
| 반제품 | 52.0 | 46.2 | 43.9 | 42.0 | 43.3 | 41.3 |
| 부품부분품 | 24.1 | 30.3 | 35.8 | 40.0 | 35.9 | 35.6 |
| 최종재 | 23.4 | 23.0 | 19.7 | 17.3 | 20.0 | 22.3 |
| 자본재 | 18.5 | 18.6 | 16.2 | 14.0 | 16.7 | 19.4 |
| 소비재 | 4.9 | 4.4 | 3.5 | 3.3 | 3.3 | 2.9 |

출처: kita.net (한국무역협회). 2010. p.29

<표3-1> 대중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 간 교역에서 중간재는 2005년 76.1%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0년까지 소폭 하락하고 2005년 전 품목 중 23.4%를 차지한 최종재는 2010년까지 점점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대 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76.8%로 전년대비 2.5% 하락한 반면, 최종재 비중은 22.3%로, 2.3% 하락하였다.

3) 정환우, “한중 간 교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03. pp.30-32

<표3-2>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전품목 | 63.5 | 132.0 | 201.8 | 232.7 | 209.0 | 189.6 |
| 일차산품 | -20.8 | -25.6 | -24.0 | -32.5 | -25.6 | -32.2 |
| 중간재 | 96.8 | 163.5 | 240.6 | 296.4 | 271.7 | 250.3 |
| 반제품 | 68.9 | 96.6 | 117.5 | 123.7 | 123.8 | 92.8 |
| 부품 | 27.9 | 66.9 | 123.1 | 172.7 | 147.9 | 157.6 |
| 최종재 | -12.5 | -5.8 | -14.7 | -31.1 | -37.0 | -28.4 |
| 자본재 | 18.1 | 28.2 | 26.3 | 15.1 | 25.2 | 42.4 |
| 소비재 | -30.6 | -33.9 | -41.0 | -46.2 | -62.2 | -70.7 |

출처 :kita.net (한국무역협회). 2010. p.38

대중국 무역수지는 <표3-2>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와 같이 중간재가 2005년 96억 달러에 2010년 250억 달러 흑자로 크게 성장 하였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무역수지가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전년대비 21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중간재를 이루고 있는 반제품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2010년 전년대비 31억 달러 축소하였으며 부품 부분품의 경우에는 2008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 2010년 소폭 상승되었다. 최종재에서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소비재의 적자폭이 2005년부터 대폭 늘어나 2010년에는 7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였다. 하지만 자본재의 경우에는 2005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1차산품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최종재는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2) 기술수준별 대중 무역 구조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 중국 수출 구조 변화와 같이 2005년에는 29.2%의 비중을 차지하던 중 저위 기술은 년 42.2%로 대 폭 하락을 보인 이후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어 2010년에는 24.3%로 상당폭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위기술의 경우에는 2005년 13.4%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중국의 산업 경제 발전에 따라 2005년에는 20.6%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42.5%의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표3-3>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 중국 수출 구조 변화

(단위: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고위기술 | 31.7 | 30.5 | 37.5 | 41.4 | 40.1 | 42.5 |
| 중고위기술 | 25.3 | 27.0 | 27.2 | 26.9 | 27.7 | 28.3 |
| 중저위기술 | 29.2 | 28.3 | 27.8 | 25.6 | 26.6 | 24.3 |
| 저위기술 | 13.4 | 9.3 | 7.1 | 5.9 | 5.4 | 4.6 |
| 기 타 | 0.4 | 0.4 | 0.4 | 0.2 | 0.2 | 0.3 |

출처: kita.net(한국무역협회). 2010. p.45

2010년도 대중 기술수준별 교역구조에서는 하이테크 품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출부분에서는 고위기술 업종이 급상승하였으며 중 저위 기술 업종의 비중은 하락하였다.⁴⁾

비중이 상승한 품목으로는 전자통신, 정밀계측기기, 화학, 특수목적기계, 자동차, 석유가공 코크스이며 비중 하락한 품목으로는 철강, 플라스틱, 비철금속, 의류 섬유제품, 종이 인쇄, 가죽 모피 제품이다. 또한 비중이 포함된 품목으로는 일반기계,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이다.

<표3-4>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 중국 수입 구조 변화

(단위: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고위기술 | 24.0 | 26.6 | 28.5 | 29.2 | 30.8 | 28.8 |
| 중고위기술 | 16.0 | 16.7 | 16.6 | 16.8 | 17.3 | 18.5 |
| 중저위기술 | 19.5 | 19.0 | 23.9 | 25.5 | 25.9 | 29.0 |
| 저위기술 | 30.3 | 27.8 | 25.5 | 22.9 | 21.9 | 19.5 |
| 기타 | 10.2 | 9.1 | 5.5 | 5.6 | 4.1 | 4.2 |

출처: kita.net (한국무역협회). 2010. p.56

<표3-4>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중국 수입 구조 변화와 같이 2005년 19.5%를 차지하던 저위기술의 비중은 차츰 감소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29.0%로 상당히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위기술의 경우 2005년 24.0%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28.8%로 상당수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고위기술 업종 비중의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며, 중고위

4) 정환우, "한-중간 교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03. p.58

및 중저위 업종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또한 저위 업종 비중은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철강 특수목적기계 비중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전자통신, 전기기기, 석유가공 코크스 등의 비중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비중이 상승한 품목으로는 철강, 특수목적기계, 자동차, 화학섬유, 석유가공품 코크스이다.⁵⁾

<표3-5> 기술수준별 대 중국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고위기술 | 33.5 | 64.5 | 102.2 | 143.5 | 128.8 | 167.3 |
| 중고위기술 | 32.3 | 58.3 | 86.5 | 101.6 | 108.9 | 115.5 |
| 중저위기술 | 35.6 | 57.9 | 67.9 | 60.2 | 58.6 | 16.5 |
| 저위기술 | -20.8 | -28.2 | -40.1 | -52.1 | -68.5 | -84.9 |
| 기타 | -17.0 | -20.5 | -14.7 | -20.4 | -18.7 | -24.7 |
| 전체 | 63.5 | 132.0 | 201.8 | 232.7 | 209.0 | 189.6 |

출처: kita.net(한국무역협회). 2010. p.25

<표3-5> 기술수준별 대중국 무역수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약 11억 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던 저위 기술은 그 적자폭을 늘리며 2010년에는 약 24억 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 저위, 중 고위, 고위 기술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면 특히 중 고위와 고위기술은 2005년 각각 1억 5천만 달러와 3천만 달러의 적은 수준의 흑자 기록을 보이던 것이 크나 큰 성장 폭을 보이며 2010년에는 각각 115억 5천만 달러, 16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큰 성장폭을 보였다. 2010년 고위, 중 고위기술 업종에서 대중 흑자는 전년대비 각각 39억 달러, 7억 달러 증가한 반면, 중 저위기술 업종에서 흑자는 42억 달러 감소하고, 저위기술 업종에서 적자 16억 달러가 증가 되었다.

2. 중국의 대한 교역 구조

한국의 대중국 지방별 교역 분포를 보면 강소성⁶⁾이 최대 수출 대상이자 수입

5) 정환우, "한-중간 교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03. pp.41-43

6) 2005년 인구당 총생산액이 3000달러 이상에 이르렀다. 산업구조는 더욱 최적화 되었으며, 첨단기술사업이 대폭 성장하였고 전통산업은 혁신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현대적 서비스업의 발전이 눈에 띄게 가속화 되었다. 소유제 구조는 지속적으로 조절되었다. 비공유제 경제가 창출한 증가액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대상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강소성은 2005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지역으로 부상했으며, 2007년에는 최대 수입대상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7년 강소성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5%이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강소성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메모리, 휴대폰 부품, 컴퓨터부품, LED, 평판압연강 등 IT 전자 분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한국 재수출이 대강소성 수입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산동성⁷⁾은 한국의 대중 수출보다는 수입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7년 산동성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를 차지하였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이다. 이에 따라 대 산동성 교역이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축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3-6> 중국의 주요 수출입 상대국 변화

(백만 달러)

| 국가 | 2005년 | | | | | | 2010년 | | | | | |
|-----|--------|----|--------|----|---------|----|---------|----|---------|----|---------|----|
| | 수출 | 순위 | 수입 | 순위 | 수출입 | 순위 | 수출 | 순위 | 수입 | 순위 | 수출입 | 순위 |
| 전세계 | 81,998 | | 80,610 | | 162,608 | | 266,661 | | 243,567 | | 510,228 | |
| 일본 | 11,699 | 2 | 13,681 | 2 | 25,382 | 2 | 45,078 | 3 | 45,078 | 1 | 87,888 | 1 |
| 미국 | 8,594 | 3 | 8,900 | 3 | 17,497 | 3 | 54,319 | 1 | 26,204 | 3 | 80,523 | 2 |
| 홍콩 | 37,512 | 1 | 20,538 | 1 | 58,051 | 1 | 46,503 | 2 | 9,424 | 6 | 55,927 | 3 |
| 한국 | 2,437 | 5 | 2,623 | 7 | 5,066 | 7 | 12,544 | 4 | 23,396 | 4 | 35,940 | 4 |
| 대만 | 698 | 9 | 5,881 | 4 | 6,588 | 4 | 5,006 | 8 | 27,344 | 2 | 32,350 | 5 |
| 독일 | 2,448 | 4 | 4,023 | 5 | 6,475 | 5 | 9,759 | 5 | 13,695 | 5 | 23,454 | 6 |
| 싱가폴 | 2,031 | 7 | 1,236 | 8 | 3,274 | 8 | 5,795 | 7 | 5,143 | 9 | 10,938 | 7 |

자료: 중국해관통계. 2010. p.68

중은 59.5%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사영개인경제의 비중은 34.2%에 이르러 각각 전년 대비 4.8%, 1.9%씩 증가하였다. 기업그룹의 발전을 지원하여 영업이익이 100억 위안 이상인 45개로 전년 대비 12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도시화는 한층 더 진행되어 2005년 말에 강소성의 도시화수준은 50.5%에 이르러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강소성 북쪽과 강소성 중부의 일부 주요 경제 지표 증가폭은 강소성 전체의 평균 수준을 초과하였다. / 중국경제연가편찬위, "2007 중국경제연감", 2007.05

7) 2005년 현재 기본적인 통계에 따르면 산동성의 전체 생산액(GDP)은 18,468.3억 위안으로 절대가격으로 환산하면 전년 대비 15.2%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1차 산업의 증가액은 1,927.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7%증가하였고 2차 산업의 증가액은 10,620.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공업의 증가액은 9,562.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다. 3차 산업의 비중은 10.4:57.5:32.1이었다. 경제가 더욱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보여 2005년도 4개 분기 전체 생산액 증가 폭의 편차는 0.5% 이내였다. 인구당 정체 생산액은 20,044위안으로 절대가격으로 환산하면 전년 대비 14.5% 증가하였다. /중국경제연감편찬위, '전개서', 2007.05

<표3-6>를 살펴보면, 한국은 2005년 중국의 제6위 교역상대국에서 2010년에는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교역액은 2005년 50.6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359.4억 달러로 연평균 24.3%의 증가율을 유지하여 7배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2005년 24.4억 달러에서 2010년 125.4억 달러로 연평균 20%씩 증가하였고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5년 26.2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234억 달러로 9배로 증가하였다.

제2절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

1. 한·중 교역구조 변화의 주요내용 및 원인

1) 한·중 교역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

(1) 한국의 부품 소재 수출증가세 둔화

중간재 중심의 한·중 무역에서 최근 들어 부품 소재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그동안 크게 늘었던 부품 소재 부분의 흑자가 2006년 이후 정체되어 있다.

(2) 고기술 상품의 수출입 비중 확대

대중국 수출입 모두 고위 및 중 고위 등 상대적으로 고기술 제품의 신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이들 제품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는 등 무역상품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3-7>한·중 간 기술수준별 무역 추이⁸⁾

(%)

| | | 연평균증가율 | | | | 비 중 | | | |
|---------------------|-----|--------|-------|-------|-------|------|------|------|------|
| | | 05~06 | 07~08 | 08~09 | 09~10 | 2007 | 2008 | 2009 | 2010 |
| 한 국 대 중 국 수 출 | 고위 | 34.7 | 52.5 | 18.4 | 39.7 | 10.0 | 22.0 | 34.7 | 34.7 |
| | 중고위 | 18.5 | 36.6 | 24.0 | 31.8 | 40.1 | 33.4 | 37.2 | 42.6 |
| | 중저위 | 23.0 | 25.9 | 13.2 | 21.1 | 21.3 | 25.7 | 20.8 | 18.1 |
| | 저위 | 14.1 | 3.6 | 0.8 | 2.5 | 28.6 | 18.8 | 7.3 | 4.5 |
| 중 국 대 한 국 수 출 | 고위 | 51.4 | 34.1 | 29.3 | 32.3 | 9.6 | 29.7 | 33.9 | 33.7 |
| | 중고위 | 22.2 | 25.9 | 35.5 | 29.5 | 13.1 | 15.9 | 14.3 | 16.4 |
| | 중저위 | 17.2 | 34.1 | 30.9 | 32.9 | 46.2 | 32.3 | 35.9 | 36.9 |
| | 저위 | 5.2 | 21.5 | 21.4 | 21.5 | 31.1 | 22.1 | 15.9 | 13.0 |

자료: OECD의 기술수준별 분류기준 인용. 2010. p.64

대중국 수출의 경우 저위 및 중 저위 제품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이들 비중이 큰 폭 축소되고 고기술 제품 비중이 전체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대중국 수입은 중 저위 제품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위 제품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고위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3) 양국간 분업체제 심화

현재 한·중 또는 한·중·일 간 국제 분업체제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주로 중 고위 기술의 소재 부품을 중국에 공급하고 중국은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여 생산한 완성품을 한국 및 지역에 수출하는 구조로 국제 분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한·중 간 산업내 무역⁹⁾이 크게 진전되어 왔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정도가 한일 무역을 추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수출의 대한국 부품 소재 수입유발효과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 수출에 대중국 부품 소재 수입유발효과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4) 세계시장에서의 상품차별화 지속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중국 8.8%, 한국 2.7%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의 점유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속한 세계

8) 고위: 우주항공, 의약, 전자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등
 중고위: 화학제품, 일반기계, 가정용 전지지지, 정밀기기, 자동차, 기타 수송 장비 등
 중저위: 석유 및 석탄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철강금속, 전기기계, 선박 등
 저위: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류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출판, 가구 등

9) 산업내 무역이란 동일산업 내에서 재화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로, 그 정도가 활발할수록 양국의 산업이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점유율 확대 속에서도 한국 수출품 대부분이 꾸준히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비교우위 수출품목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3-8> 주요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 중 국 | | | 한 국 | | |
|---------|---------|---------|------|---------|---------|-----|
| | 2009(A) | 2010(B) | B-A | 2009(A) | 2010(B) | B-A |
| 화장품 | 2.4 | 4.3 | 1.9 | 2.0 | 2.7 | 0.7 |
| 고무 플라스틱 | 1.7 | 4.9 | 3.2 | 3.9 | 4.3 | 0.4 |
| 철강금속 | 2.9 | 9.6 | 6.7 | 3.1 | 3.6 | 0.6 |
| 섬유 의복 | 17.3 | 31.4 | 14.1 | 3.7 | 3.6 | 0.6 |
| 자동차 | 1.3 | 3.5 | 2.2 | 2.8 | 4.3 | 1.5 |
| 선박 | 4.1 | 12.0 | 7.9 | 22.8 | 26.2 | 3.4 |
| 전기전자 | 8.4 | 21.3 | 12.9 | 5.0 | 6.0 | 1.0 |
| 전체 | 5.1 | 8.8 | 3.7 | 2.5 | 2.7 | 0.2 |

자료:UN Comtrade Database, UNCTAD Trade Database. 2010. p.69

2) 한·중 무역구조 변화 원인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재 및 부품 소재 수요를 한국 산업이 상당부분 충족시켜 줌으로써 대중 수출 호화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산업의 설비 및 기술 부족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수입수요가 점차 내부화되고 일부는 수출하는 단계로 진전하였다.

아울러 내수용 완제품 및 한국 산업의 중간재에 대한 대중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도 한중 교역구조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따라서 최근의 대중 수출 증가세 둔화 및 수입 증가세 확대 움직임은 양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한·중 교역 패러다임의 본격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1) 중국의 산업 고도화

중국은 자원집약형 중화학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공급능력이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광공업 생산이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비중도 확대하는 추세를 보였다.

광공업 중에서도 그동안 축소 내지는 정체를 보이던 중공업 부문이 2005년부

터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생산설비 확충에 힘입어 주요품목 대부분의 생산능력이 크게 제고되었는데, 특히 철강 등 1차금속, 화학제품 및 비금속광물 소재, 컴퓨터 등 전기전자, 기계류, 수송기계 등의 증가세가 현저하였다.

중국 내 주요 산업의 기술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의 경우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한·중 간 기술격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발전이 생산기술 위주인 데나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및 화학소재, 기계류, 첨단 조선 등 표준화나 국제분업화가 미미한 품목의 경우 한·중 간 기술수준은 여전히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산업정책의 목표를 기존의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부품 소재 및 설비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가공무역에 대한 혜택은 크게 축소 될 것이다.

중국 산업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는 한중 교역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는 중국과의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국내 요인

수출호조에 따른 대중 수입수요 급증하였고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로 인하여 최근 5~6년간의 수출호조와 함께 수입도 중간재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부품 소재 수입에 있어서 일본 및 미국 비중이 하락하고 이를 중국이 대체하면서 중국 비중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수용 제품 수입수요 증가하였고 대중 수입은 수출용 수입뿐만 아니라 내수용 수입 역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중은 내수용이 수출용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중국이 수출용 중간재 공급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내 소비용 완제품 및 중간재의 공급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 한·중교역관계의 변화

1)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

(1) 한·중의 초보적인 무역거래

양국의 경제 교류는 시작할 때부터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쌍방은 주로 간접적 무역을 진행하였다.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건립하였고 쌍무 협정을 체결하였다.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양국 경제 무역관계는 신속히 발전하였다.

(2) 국교수립과 최대의 무역파트너

한·중 두 나라 경제는 서로 보완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 제품은 전기 음향설비 및 부속품, 방직원료 및 제품, 금속 및 제품, 광산물, 식물 제품과 화공제품 등 6가지 유형의 상품이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은 전기음향설비 및 부속품, 및 관련제품, 금속 및 관련제품,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광산물, 광학 의료기 등 6대유형상품의 수입으로 한국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의 92.2%에서 2007년의 93.3%로 증가하였다 이는 두 나라의 수출입상품무역의 구조를 진일보로 우회화 하여 과거의 원재료 형태로부터 제품 완성품으로 변형 되었고, 저부가가치로부터 고부가가치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두 나라 경제무역이 새로운 계단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중 양국의 무역 상품 구조는 점점 다양화 되었고 중국이 한국에 대하여 면화, 생사, 옥수수 및 기타 농산품과 석탄, 석유, 방직제품과 철강제품 등을 수출하고, 한국은 주로 중국에 대해 강철자재, 고급방직제품, 수지제품, 화학공업, 화학섬유, 전자제품과 기계 설비를 수출하였다. 그 구조를 보면 쌍방의 무역 제품은 서로 보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한국의 기술, 자본 밀집형 제품과 중국의 자원형 초급제품과 노동밀집 제품이 상호 수출상품이었다.

중국은 이미 2003년 9월을 기점으로 한국의 제1위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한국도 중국의 제3대 무역 동반자가 되었다. 양국의 무역관계에서 불평형 문제는 최근 이미 일부 무역 마찰을 일으켰다.

(3) 한·중 양국 간 합자영역의 확대

양국 경제, 무역 합작의 기초인 산업방면의 합작도 이미 시작되었다. ‘한·중 산업 합작위원회 건립에 관한 결정’을 체결하였다. 쌍방은 우선 자동차, 컬러 TV, 민간 항공여객기 등의 영역에서 합작하고 다음 합작 영역으로는 평화적인 핵에너지, 화력 발전과 석유화학공업 등의 영역에 확대할 것을 확정하였다. 이런 합작은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가 기술로 천하를 지배하는 국면을 타파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기상을 가져다주는데 유리하다.

한·중 양국은 교류의 역사가 길고,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며 또 양국 간 경제는 상호 좋은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양국의 경제거래 발전에 양호한 기초를 제공 한다. 비록 현재 양국 경제 관계에서 충분한 이해와 무역의 불균형, 경제적 합작 차원이 더욱 제고되어야 하는 등 문제가 존재하지만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 한·중 무역 관계의 발전

한·중 무역은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무역은 외교 관계를 맺은 후근원 과정 속에서 쌍무무역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중국 상업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995.6억 달러로 중국과 한국 무역 총계는 9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7년과 비교했을 때 42.5%가 성장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73.18억 달러를 수출했고, 622.49억 달러를 수입했다. 수출입 대비 38.4%와 44.3%가 분리되어 성장했다. 중국 관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과 중국 무역 총계는 1119.3억 달러로, 증감대비 24.3%로, 3년 계획에 따른 1000억 달러 목표를 사전에 달성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351.1억 달러를 수출하고, 768.2억 달러를 수입하여, 수출입 대비 26.2%와 23.4%로 분리되어 성장했다. 한국은 중국의 네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네번째로 큰 수출액 시장 및 셋번째로 큰 수입의 근원 장소이다. 중국은 한국의 첫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첫번째로 큰 수출액 시장으로 무역에 균형을 맞춰주는 근원이다.

양국 간의 무역은 두 국가에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전제로 증가될 수 있다. 외교 관계를 맺은 후, 정부 계약과 한·중 경제무역 및 기술적인 협력을 위해 설치된 한·중 기업협력 위원회, 한·중 투자 협력 위원회, 한·중 무역 관행 회의 등 많은 종류의 협력 장치로 두 국가 전체의 경제 및 무역 발달을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두 국가 모두 상품의 풍부한 소비자인 넓은 시장을 제공했다. 매년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많은 제품은 대다수 부가 가치가 낮은 자원집약 상품 및 노동집약 상품, 원료 상품 그리고 제품이다. 또한 2006년에 중국이 한국에 수출을 시작한 필수 상품으로는 기계 및 전기 청각 장비 및 부속으로 2009년 전년도 대

비 큰 영향력을 가진 필수 상품으로 되었다. 이 중 가장 큰 성장을 가진 것은 값이 싼 금속 및 그에 따른 제품으로 작년 대비 70%의 성장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기계전기 청각 장비 및 그 부품은 작년 대비 50%의 성장률을 보였다.

현재 두 국가 수출입 상품의 구조는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다양하다. 낮은 부가가치에서 높은 부가가치로의 승진이 이루어졌으며, 두 국가 모두 경제와 무역 관계는 이미 수평분업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대 중국 수출 제품 중 전자제품 강철제품 일반 기계장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양은 꾸준히 단계별로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원료 및 그에 따른 제품, 기계 및 전기 청각 장비 및 부속, 싼 금속, 화학제품 및 곡물 등 제품의 이윤이 큰 제품은 한국 수출이 증가하고 작년 대비 41%의 성장률을 보였다.

3) 양국 간 투자 증대

한·중 투자관계는 아직 한국의 대중국투자가 중국의 대한국투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일방적인 관계이다. 최근 중국의 대한국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양국 간 투자관계의 일방성에 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한국의 대중국투자 중 81%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자통신 자동차 섬유 의복 화학 기계 등이 핵심투자 분야이다. 기업규모면에서 최근 6년동안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이 대기업의 투자금액보다 많은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구조로 볼 때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능력이 부족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보호 강화 및 중국의 서비스시장 분야의 추가개방 등이 양국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10)

중국의 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중에서 WTO 가입 이전에 존재했던 현지 조달 의무, 수출 의무비율 등은 현재 폐지되었다. 그러나 등록자본 대비 최소 투자비율 등의 규제는 여전히 존재 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가공무역 관련 규제도 영업상 규제를 통한 사실상의 투자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가공무역 물품을 금지 물품, 제한 물품 및 비제한 물품 등 3종으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고 있다 투자 이후 제한 물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투자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0) 이성봉, “한중FTA 사전점검-투자분야협상이 왜 중요한가”, Chinadia Journal, 2006.6. p.36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유화 및 보호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상 등을 통해서 투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규제 및 행정의 합리성이 한국에 비해 부족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은 수출용 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목적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내수시장 지향형 대중국 투자는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형 또는 가공무역형 대중국 투자는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으로 승용차는 소형차를 중심으로 최근 시장점유율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소형차 구매지원 정책에 편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4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 중국의 대한국투자 건수는 812건으로 7천만 달러 있는데, 2007년에는 365건에 3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¹¹⁾

중국정부는 석유 등 자원 확보, 첨단기술획득,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중국의 대외영향력 확대 및 위안화 절상압력 완화 등을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경제규모 확대에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석유, 석탄, 철광석, 구리 등 주요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둘째, 최근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시 첨단기술 이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선진기술 획득을 위한 대 선진국 투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셋째, 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정치 경제적 압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외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넷째,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외환보유액 증가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위안화 절상압력을 완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해외투자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 되기도 하였다.¹²⁾

11) 김성철, 「한중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08. p.27

12)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한국과 중국 약국 간 무역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4) 주요 무역품목의 변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국 간 무역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무역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용 전자제품과 수송기계가 중요한 무역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품목의 변화를 볼 때 양국 간 무역이 소재류 중심 구조에서 부품류 중심 구조로,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 구조에서 점차 기술집약적 제품 중심 구조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국 간 무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산업용 전자제품과 수송기계를 들 수 있다. 중국이 전자산업에서 세계적인 최중재 기지로 등장하면서 관련 설비 및 부품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중국 전자 통신 관련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의 경우 중국산 제품의 수입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의 경우 상당 부분이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판매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되면서 한국기업들의 국내 생산활동이 점차 위축되어 한국 대 중국 수출증가 속도는 둔화되는 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 속도는 빨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양국 간 무역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품목으로서 섬유관련 품목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위축된 품목으로는 직물, 가죽 및 모피제품, 제지 원료 및 종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은 단계에 속하는 것이다. 한국 대중 수출에서 직물이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중국 내 생산 확대와 고부가가치가 진전되면서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양국 간 수교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1991년까지로서 한중 무역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양국 간 무역이 홍콩을 통한 간접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에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점차 직무역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한중 간 수교 이후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중 간 무역의 제1기 발전과 조정기이다. 이 시기에는 한중 간 무역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동시에 직무역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양국 간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2의 발전기로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무역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무역상품 구조에 있어서도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표3-9> 대중국 10대 수출입 상품변화

(단위: 억 달러)

| 구분 | 순위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
| |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 수출 | 총계 | | 13,572 | 총계 | 18,190 | 총계 | 61,915 |
| | 1 | 석유화학제품 | 2,252 | 석유화학제품 | 3,337 | 전자제품 | 9,893 |
| | 2 | 광물성연료 | 1,549 | 광물성연료 | 1,671 | 산업용 전자제품 | 9,851 |
| | 3 | 직물 | 1,432 | 전자제품 | 1,636 | 석유화학제품 | 9,688 |
| | 4 | 철강제품 | 949 | 직물 | 1,595 | 기초산업기계 | 4,733 |
| | 5 | 가죽 및 모피제품 | 807 | 산업용 전자제품 | 1,429 | 철강제품 | 4,250 |
| | 6 | 전자제품 | 583 | 철강제품 | 1,380 | 수송기계 | 3,489 |
| | 7 | 산업기계 | 528 | 가죽 및 모피제품 | 676 | 광물성연료 | 3,274 |
| | 8 | 섬유사 | 508 | 가정용 전자제품 | 676 | 가정용 전자제품 | 1,999 |
| | 9 | 섬유원료 | 507 | 산업기계 | 615 | 직물 | 1,879 |
| | 10 | 제지원료&종이제품 | 457 | 정밀화학제품 | 581 | 비철금속제품 | 1,739 |
| | | 10대 품목(비중,%) | 9,572 | 10대 품목 | 13,596 | 10대 품목 | 50,795 |
| | | 총계 | 10,117 | 총계 | 13,303 | 총계 | 38,648 |
| 수입 | 1 | 철강제품 | 1,493 | 산업용 전자제품 | 1,481 | 산업용 전자제품 | 6,124 |
| | 2 | 광물성연료 | 1,498 | 광물성연료 | 1,290 | 철강제품 | 4,789 |
| | 3 | 농산물 | 1,038 | 섬유제품 | 1,297 | 전자부품 | 4,099 |
| | 4 | 직물 | 791 | 전자부품 | 1,201 | 섬유제품 | 2,617 |
| | 5 | 섬유제품 | 753 | 농산물 | 941 | 광물성연료 | 2,297 |
| | 6 | 가정용 전자제품 | 426 | 가정용 전자제품 | 688 | 농산물 | 1,890 |
| | 7 | 전자부품 | 424 | 수산물 | 634 | 비철금속제품 | 1,740 |
| | 8 | 정밀화학제품 | 421 | 중전기 | 634 | 가정용 전자제품 | 1,592 |
| | 9 | 산업용 전자제품 | 363 | 정밀화학제품 | 634 | 정밀화학제품 | 1,457 |
| | 10 | 비철금속제품 | 335 | 직물 | 619 | 중전기 | 1,407 |
| | | 10대 품목 | 7,268 | 10대 품목 | 9,402 | 10대 품목 | 28,012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0. p.64

(1) 무역구조의 변화

중국 무역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가공무역은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수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내 가공무역은 외자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반제품 등의 중간재를 한국, 일본, 대만, ASEAN 등 주변국으로부터 조달하여, 중국 내에서 가공한 후 미국과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매입 매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 무역의 특징으로 인해, 한·중 간 무역을 가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간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국무역의 이러한 특징은 근본적으로 중국은 완제품 조립 및 가공 산업에서, 한국은 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양국 간 비교우위 차

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외에도 한국기업의 중국 확대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 핵심부품과 소재를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기업내 무역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술수준별 무역구조의 변화

한·중 간 무역을 기술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양국 간 무역구조가 점차 고위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수출 역시 중 저위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2002년 이후에는 고위 기술 산업 비중이 중 저위 기술 산업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고위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최종재 수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이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산업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주요 핵심부품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³⁾둘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저위 기술 산업에서 고위기술 산업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위 기술 산업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며,¹⁴⁾ 고위 기술 산업에서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¹⁵⁾셋째, 한국은 고위 중 고위 중 저위기술 산업에서 대중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저위기술 업종에서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 기술 산업과 중 고위 기술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 저위 기술 산업에서는 2004년을 정점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저위 기술

13) 중국의 수입상품 구조를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최종재 수출이 고위기술사업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동 산업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수입에서 고위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19.3%에서 2005년에는 44.6%로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는 중국 내 부품 및 소재공급 능력이 강화되어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예컨대 저위 기술산업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9.4%에서 2005년에는 8.2%로, 중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은 26.0%에서 21.5%로, 중고위 기술산업의 비중은 34.8%에서 25.8%로 낮아졌다.

14) 중국의 수출구조를 기술수준별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산업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하이테크 기술이 체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중국의 수출에서 고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6.7%에서 2005년에는 36.8%로, 중고위 기술산업의 비중은 15.6%에서 18.3%로 높아진 반면, 중저위 기술산업의 비중은 20.4%에서 17.5%로, 저위기술산업 비중은 47.3%에서 27.4%로 낮아졌다.

15) 2004년을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전기전자 업종의 매출지역을 살펴보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41.4%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은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적자규모 역시 확대되는 추세이다.

(3) 무역 주체별 무역구조

한·중 간 무역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중 간 무역의 70.0%가 중국내 외자기업에 의한 것으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76.4%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자기업에 의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의 55.4%가 외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무역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 중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 중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9.8%에서 2009년에는 76.4%로 높아졌으며, 중국의 대한국 수출 중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24.7%에서 55.4%로 높아졌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국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의 주변국로부터 매입하여 중국 내에서 가공 또는 조립한 후 모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매입 매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특히 한 중 무역은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 간 무역의 상당 부분은 특히 한국기업의 중국 직접투자와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국내 모기업이 현지 투자법인에 생산설비 및 주요 원자재를 수출하고, 생산품의 일부를 국내로 역수입하는 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시사점

첫째,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중 양국의 교역관계가 과거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점차 경쟁적 관계로,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 수평적 분업 관계로 이행되면서 양국 간 수출과 수입 품목이 유사성을 띄고 있다.

16)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중에서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 76.4%, 일본 72.9%, 대만 78.6%, 미국 53.1%, EU 49.6%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수입 관세장벽 인하, 내수시장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및 수출확대 등 최근 중국시장 환경변화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한·중 간 교역 품목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가 과도한 무역흑자와 외환 보유고, 국내 자본 유동성 적절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역 및 투자 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해 왔다. 중국 시장의 환경변화로 중국에서 주로 가공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중국현지 생산을 위해 대한민국 수입 중간재 품목의 수입이 둔화되고 있다.

셋째,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에 따른 수출 유발 효과가 지속 감소되고 있으며,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의 확대로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 체제가 갖추어져 감에 따라 현지 원부자재 조달이 과거보다 크게 용이해지고 있다.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국산화율 요구에 따라 부품기업과의 동반진출이 이뤄지면서 현지 조달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대중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대응책으로 ① 매출 개념에서 순익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도 그 동안 양적인 성장을 지속했으나, 최근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속적인 비용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적자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② 떠오르는 신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의 변화, 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단순히 한국이 중국에 판매하고 싶은 것보다는 중국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③ 브랜드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구조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국은 향후 내수 소비시장 확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브랜드 역량이 전반적으로 미약한 상황에서 향후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 성패의 관건은 브랜드 파워에 달려 있다.

④ 미래 예측역량을 확증해야 한다. 중국은 구조적 전환과 정책 환경 변화가 급속이 이뤄지고 있어 한발 앞서 예측하고 경영에 반영하는 등 치밀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세계를 보며 중국을 경영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글로벌 편입 가속화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도 글로벌 시각을 유지하는 " Think Global & Act Local"

이 필요하다. 경영관리 방식의 현지화, 인적자원의 현지화,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현지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⑥ 정보화의 비교우위를 유지 확대하는 한편, 금융과 유통 등 서비스 부분의 진출을 통해 제조업과 연계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IT 인프라와 정보기술 인력, 정보시스템 유통 등에 대한 정부 통제로 인터넷 환경이 저조하여 이 부문에 대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⑦ 중국 내수급구조가 현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현지 마케팅과 A/S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 현지 법인의 기능을 공격적인 마케팅과 A/S 등 고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지 생산의 확대로 제품 간 품질 차이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무형자산을 통한 차별화를 강화해야 한다.

⑧ 고부가 고기술 부문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한·중 간 경쟁관계를 고려한 시장별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디자인과 설계분야의 적극 투자 등으로 고부가 고기술 분야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현지화 전략의 심화 확대를 통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

⑨ 직접적 경쟁보다는 효율적인 분업 구도를 모색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출혈 경쟁보다는 동북아경제권 형성과 발전차원에서 한·중 및 한·중·일 산업별 업종별 상호 보완적인 분업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의 제조업 공동화와 중국의 무역보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진출에 대한 중국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중국 정책적 극 활용을 통하여 국유기업 인수를 통해 중국 경제의 현안 해결과 한국기업의 가치 제고라는 이중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⑩ 핵심부품 소재 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지난 90년대 국내업체가 많은 업종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불과 10여년 만에 중국의 부품 소재기술이 한국과 비슷해졌다. 국내업계의 핵심부품 소재의 국산화 및 차세대 부품 소재의 개발, 특히 핵심부품과 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수출유망 부품 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⑪ 부품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에 대응한 전문화 및 대형화가 필요하다. 2002년 말 국내 중소 부품 소재업체의 비중은 99.1%에 달하지만 생산액과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55.5%와 52.1%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련기업 대형화를 위해 투자펀드를 확대하고 제조전문회사 육성책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추격을 고려하여 중국제품과의 차별화 및 고급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⑫ 산업공동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공동화의 대책은 생산시설의 중국이전 저지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고부가 산업의 육성 등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⑬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출구조 구축을 위한 수출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편중현상이 심해지면 특정품목이나 시장의 경기변동 및 외국의 통상압력에 따라 전체 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제3절 한·중 교역 상품구조 분석

1.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상품구조 분석

1) 대중국 수출상품구조 변화

대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여 수출상품의 다양화가 진전하였다. 대 중국 수출에서 철강제품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국이 세계의 가전, 통신기기 등의 생산기지로 전환되고, 내수가 확대되면서 전자부품과 산업용 전자제품이 대중 주력 수출상품으로 부상되었다.

<표3-10>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상품 변화

| 순위 | 2007/품목 | 2008/품목 | 2009/품목 | 2010.11/품목 |
|----|--------------|--------------|--------------|--------------|
| 1 | 컴퓨터 | 반도체 | 반도체 | 반도체 |
| 2 | 무선통신기기 | 컴퓨터 | 석유제품 | 석유제품 |
| 3 | 반도체 | 무선통신기기 | 평판디스플레이 | 철강관 |
| 4 | 철강관 | 평판디스플레이 | 무선통신기기 | 합성수지 |
| 5 | 합성수지 | 석유제품 | 합성수지 | 자동차부품 |
| 6 | 석유제품 | 합성수지 | 광학기기 | 컴퓨터 |
| 7 | 석유화학 합성원료 | 광학기기 | 컴퓨터 | 광학기기 |
| 8 | 광학기기 | 석유화학 합성원료 | 석유화학 합성원료 | 무선통신기기 |
| 9 | 자동차부품 | 석유화학 중간원료 | 철강관 | 석유화학 합성원료 |
| 10 | 석유화학 중간원료 | 철강관 | 석유화학 중간원료 | 석유화학합성원료 |

자료: KOTIS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0. p.49

한국의 대중국 수출상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본재 비중은 높아진 반면, 원자재 비중은 낮아진다. 그러나 여전히 원자재가 60%이상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을 상당부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출 증대가 원자재 수입 증대를 유발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표3-11> 한국의 용도별 대중국 수출구조 변화

(백만 달러 %)

| | 2007 | | 2008 | | 2009 | | 연평균증 가 율 (92~01)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총수출 | 2,654 | 100.0 | 13,572 | 100.0 | 18,190 | 100.0 | 23.8 |
| 원자재 | 2,164 | 81.5 | 9,442 | 69.6 | 11,135 | 61.2 | 20.0 |
| 자본재 | 335 | 12.6 | 2,724 | 20.1 | 5,085 | 28.0 | 35.3 |
| 소비재 | 155 | 5.8 | 1,405 | 10.3 | 1,968 | 10.8 | 32.6 |
| 직접소비재 | 3 | 0.1 | 141 | 1.0 | 98 | 0.5 | 47.3 |
| 내구소비재 | 106 | 4.0 | 800 | 5.9 | 1,264 | 6.9 | 31.7 |
| 비내구소비재 | 46 | 1.7 | 464 | 3.4 | 607 | 3.3 | 33.2 |
| 기 타 | 28 | 1.1 | 1 | 0.0 | 0 | 0.0 | -- |

자료: KOTIS. 2009. p.57

한국의 대중 수출상품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은 연평균 5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한 반면, 철강, 가전, 가운제품, 화섬 등 한국의 기존주력 수출품목의 대중 수출증가율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시장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이 중국의 수입규제의 주요한 대상품목이 되고 있다.

2) 대중국 수입상품구조 변화

<표3-12>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입상품 변화

| 순위 | 2007/품목 | 2008/품목 | 2009/품목 | 2010.11/품목 |
|----|----------|---------|---------|------------|
| 1 | 컴퓨터 | 컴퓨터 | 철강관 | 광학기기 |
| 2 | 의류 | 철강관 | 반도체 | 무선통신기기 |
| 3 | 석탄 | 반도체 | 컴퓨터 | 평판디스플레이 |
| 4 | 반도체 | 의류 | 평판디스플레이 | 자동차부품 |
| 5 | 전자응용기기 | 평판디스플레이 | 의류 | 합성수지 |
| 6 | 철강관 | 무선통신기기 | 석탄 | 정밀화학원료 |
| 7 | 알루미늄 | 알루미늄 | 선재봉강 | 광학기기 |
| 8 | 정밀화학원료 | 선재봉강 | 무선통신기기 | 석유화학합성원료 |
| 9 | 정전기기 | 석탄 | 정밀화학원료 | 철강관 |
| 10 | 합금철선철,고철 | 정밀화학원료 | 알루미늄 | 반도체 |

자료: KOTIS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0. p.72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광산품, 화공품 등 원자재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정보통신기기, 전자부품, 기계류 등 자본재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한국 수출경쟁력이 제고 됨으로써 중국 내 생산제품의 한국 내 역수입이 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전기 전기전자제품 수입이 10년간 32배로 증가하여 대중국 의존도도 높아진다. 이 중에서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중국 의존도가 크게 상승되었다.

2.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상품구조 분석

1) 전기·전자업종 중심의 수출구조 정착

중국의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중국의 수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전기·전자업종이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9.5%에서 2006년에는 38.8%로 상승하였다. 또한 일반기계가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6.4%에서 2006년에는 8.2%로 상승하였다.

2) 철강 및 철강제품, 의류, 알루미늄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에서 수출증가율이 둔화

철강의 수출증가율은 2007년 136.1%에서 8.2%로 크게 하락하였고, 철강제품도 동 기간 중 52.6%에서 11.8%로 하락했다.

의류는 36.8%에서 -1.4%, 플라스틱 제품은 22.3%에서 9.5%를 기록하고 있다.

3) 부품과 자본재 중심의 무역구조로 전환

중국의 주력 수출상품이 소비재에서 자본재와 부품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3.8%에서 2006년 1~11월 중에는 31.3%로 낮아진 반면, 자본재 비중은 17.3%에서 26.7%로, 부품과 부분품의 비중은 12.9%에서 17.6%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진출한 부품 및 소재 관련 외자기업이 중국을 글로벌 소싱기지로 활용하는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 있어서는 일차상품과 부품의 비중이 대폭 상승하였다. 중국의 고도성장 에 따른 수요 확대와 국제 자원가격 상승으로 중국의 수입에서 일차상품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00년 13.5%에서 2006년 1~11월 중에는 18.0%로 높아졌다. 일차상품 무역에서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 소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국내 의 일차자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류의 수출은 통제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재의 수입에서는 반제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39.6%에서 27.8%로 낮아진 반면, 부품과 부분품의 비중은 24.2%에서 30.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의 산업생산에 있어 반제품 조립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필요한 부품 과 부분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재분야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무역수지에 있어 일차상품과 부품은 적자가 확대되

고 있는 반면, 소지재와 자본재는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내의 반제품 조립 산업 성장으로 중간재 중 반제품 무역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2006년에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부품과 부분품 무역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4절 한·중 수출입시장 구조 분석

1. 한국 수출입시장 점유율 분석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이후 빠른 상승세를 유지, 2010년에는 14.8%로 전년대비 1.6%상승하였고 2010년 한국의 대한 수입액은 386억 달러로 전년대비 30.6% 증가한 것이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만 상승하고, 주요 교역국의 점유율은 하락세 유지하고 있음을 <표3-13>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3-13> 주요 국/지역별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주요국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중국 | 8 | 9.4 | 11.4 | 12.3 | 13.2 | 14.8 |
| 일본 | 19.8 | 18.9 | 19.6 | 20.3 | 20.6 | 18.5 |
| 미국 | 18.2 | 15.9 | 15.1 | 13.9 | 12.8 | 11.7 |
| ASEAN | 11.3 | 11.3 | 11 | 10.3 | 10 | 10 |
| EU | 9.8 | 10.6 | 11.2 | 10.8 | 10.8 | 10.4 |
| 기타 | 32.8 | 34 | 31.6 | 32.4 | 32.7 | 34.5 |

자료: 자료: OECD의 기술수준별 분류기준 인용. 2010. p.52

가공단계별로는 중국산의 시장점유율 <표3-14>과 같이 중간재, 최종재 모두 시장점유율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반제품, 부품 부분품, 자본재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한 반면, 2008년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14> 가공단계별 한국의 대중 수입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

| 가공단계 | 대중 수입액(달러) | | | | 중국산점유율(%)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07 | 2008 | 2009 | 2010 | |
| 전품목 | 74 | 128 | 295.8 | 386.5 | 5.5 | 8 | 13.2 | 14.8 | |
| 일차상품 | 10.5 | 20.6 | 26.8 | 36.3 | 4.4 | 5.6 | 5.6 | 5.7 | |
| 중 간 재 | 소계 | 47.6 | 64.4 | 156.2 | 211.6 | 6.5 | 7.3 | 12.7 | 15.4 |
| | 반제품 | 43.5 | 44 | 101 | 136.5 | 9 | 8.9 | 13.2 | 15.7 |
| | 부품부분품 | 4.1 | 20.4 | 55.1 | 75 | 1.6 | 5.3 | 11.9 | 14.9 |
| 최 종 재 | 소계 | 15.9 | 43 | 112.8 | 138.5 | 4.4 | 12.1 | 21.2 | 22.8 |
| | 자본재 | 3 | 17.6 | 54.3 | 71.5 | 1.1 | 7 | 15.5 | 18.1 |
| | 소비재 | 12.9 | 25.4 | 58.4 | 67 | 15.7 | 24.4 | 32.6 | 31.8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0. p.45

중간재 수입시장에서는 <표3-15>과 같이 아시아 국가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미국과 EU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을 표<3-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3-15> 주요 교역국의 가공단계별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 변화 (%)

| 가공단계 | | 일본 | | 미국 | | 대만 | | 아세안 | | EU | |
|-------------|-----|------|------|------|------|------|------|------|------|------|------|
| | | 2008 | 2009 | 2008 | 2009 | 2008 | 2009 | 2008 | 2009 | 2008 | 2009 |
| 중 간 재 | 소계 | 24.7 | 24.2 | 13.4 | 12.7 | 4.8 | 4.7 | 11.6 | 11.8 | 11.4 | 10.7 |
| | 반제품 | 23.2 | 23.7 | 9.3 | 9 | 1.8 | 1.9 | 10.6 | 10.6 | 10.6 | 9.5 |
| | 부품 | 27.2 | 25 | 20.2 | 19.2 | 9.8 | 9.4 | 13.2 | 13.9 | 12.6 | 12.6 |
| 최 종 재 | 소계 | 27.6 | 23.4 | 15.2 | 16.1 | 2.6 | 2.6 | 7.1 | 7.1 | 18.1 | 19.7 |
| | 자본재 | 35.7 | 29.9 | 16.8 | 18.6 | 2.7 | 2.4 | 6.5 | 6.6 | 17 | 19 |
| | 소비재 | 11.9 | 11.3 | 12 | 11.4 | 2.3 | 3 | 8.3 | 7.9 | 20.2 | 21 |

자료: 자료: OECD의 기술수준별 분류기준 인용. 2009. p.27

고위기술(하이테크), 중 고위기술, 중 저위기술 업종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한 반면, 저위기술 업종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저위기술 업종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200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3-16> 참조]

<표3-16> 기술수준별 한국의 대중 수입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단위: %)

| | 대중수입액(억달러) | | | | 중국의점유율(%) | | |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06 | 2007 | 2008 | 2009 |
| 고위기술 | 5.8 | 29.9 | 84.3 | 112.8 | 2.1 | 6.3 | 14.4 | 17.3 |
| 중고위기술 | 8.3 | 19.3 | 49 | 64.9 | 2.2 | 6.2 | 10.7 | 12.5 |
| 중저위기술 | 28.6 | 26.3 | 70.7 | 98.4 | 10 | 8.8 | 13.7 | 16.1 |
| 저위기술 | 26.2 | 36.2 | 75.5 | 88.4 | 8.2 | 8.1 | 12.8 | 12.0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 p.58

업종별로는 <표3-17>과 같이 한국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강화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중국산이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3-17>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변화

| | | 시장점유율(2005년--2010년) | |
|-------------|------------------|--|---------|
| | | 상승 | 하락 |
| 경 쟁 력 | 비 교 우 위 | 가공농산물, 식품, 담배, 섬유 의류 신발, 가죽 모피, 목재 가구, 문교 체육용품,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조선, 가전제품, 방송통 신기기 설비, 컴퓨터, 소자 인쇄회로, 음향기기, 기 타전자부품, | 음료, 의약품 |
| | 비 교 열 위 | 종이, 화학원료, 화학섬유, 고무, 플라스틱, 일반기 계, 자동차, 직접회로, 계측 광학기기 | 석유제품 |

자료: 자료: OECD의 기술수준별 분류기준 인용. 2010. p.71

2. 중국 수출입시장 점유율 분석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1.7%로 전년대비 0.6% 상승하였다. 2010년 대한 수입액은 769억 달러로 전년대비 23.4% 증가하였다.

<표3-18>과 같이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ASEAN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표3-18> 주요 국/지역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¹⁷⁾

(단위: %)

| 국가/지역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전세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한국 | 10.3 | 9.6 | 9.7 | 10.5 | 11.1 | 11.7 |
| 일본 | 18.4 | 17.6 | 18.1 | 18 | 16.8 | 15.3 |
| 미국 | 10 | 10.8 | 9.3 | 8.2 | 8 | 7.48 |
| 대만 | 11.3 | 11.2 | 12.9 | 12 | 11.5 | 11.3 |
| ASEAN | 9.9 | 9.6 | 10.6 | 11.5 | 11.2 | 11.4 |
| EU | 13.9 | 14.9 | 13.3 | 13.2 | 12.5 | 11.1 |
| 중국 | 3.2 | 3.6 | 5.1 | 6.1 | 9.4 | 8.6 |

자료: OECD의 기술수준별 분류기준 인용. 2010. p.39

가공단계별로는 중국의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표 3-19> 은 2007년에 13.5%에서 2008년에 15.0%상승한 반면, 최종재 점유율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

<표3-19> 가공단계별 중국의 대한 수입과 한국의 시장점유율¹⁸⁾

(백만 달러)

| 가공단계 | 대한 수입액 | | | 구성비(%) | | 시장점유율(%) | | |
|------|--------|--------|--------|--------|------|----------|------|------|
| | 2008 | 2009 | 증감률(%) | 2008 | 2009 | 2008 | 2009 | |
| 전품목 | 62,166 | 76,875 | 23.5 | 100 | 100 | 11.1 | 11.6 | |
| 일치상품 | 272 | 329 | 21 | 0.4 | 0.4 | 0.3 | 0.3 | |
| 중 | 소계 | 45,072 | 58,652 | 30.1 | 72.5 | 76.3 | 13.5 | 15 |
| | 반제품 | 25,397 | 29,807 | 17.4 | 40.9 | 38.8 | 14.6 | 15.2 |

17) 중국은 중국산 산업의 역수입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DB; www.kita.net). 2010. pp.28

18) 자료: 중국 해관통계(KITA DB; www.kita.net). 2009. p.33

| | | | | | | | | |
|-----|--------|--------|--------|------|------|------|------|------|
| 간재 | 부품및부분품 | 19,675 | 28,845 | 46.6 | 31.6 | 37.5 | 12.3 | 14.8 |
| 최종재 | 소계 | 16,726 | 17,872 | 6.6 | 26.7 | 23.2 | 11.9 | 11.5 |
| | 자본재 | 15,316 | 16,075 | 5 | 24.6 | 20.9 | 12.9 | 12.5 |
| | 소비재 | 1,410 | 1,752 | 24.3 | 2.3 | 2.3 | 6.2 | 6.6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 p.42

중국의 고위기술(하이테크)업종과 중 고위기술 업종 수입에서 표<3-20>과 같이 한국산제품의 경쟁력 상승한 반면, 저위기술 업종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표3-20> 기술수준별 중국의 대한 수입과 한국의 시장점유율¹⁹⁾

(백만 달

| 기술수준 | 대한 수입액 | | | | 한국의 시장점유율(%) | | |
|-------|--------|--------|--------|-----------|--------------|------|------|
| | 2007 | 2008 | 2009 | 증 감 륜 (%) | 2007 | 2008 | 2009 |
| 고위기술 | 5,346 | 28,328 | 37,769 | 33.3 | 8.4 | 14.1 | 15.2 |
| 중고위기술 | 4,765 | 13,775 | 16,673 | 21 | 8.9 | 10.2 | 11.6 |
| 중저위기술 | 9,490 | 16,544 | 18,955 | 14.6 | 18.6 | 15.8 | 15.8 |
| 저위기술 | 3,492 | 3,345 | 3,260 | -2.5 | 12.4 | 7.8 | 7.1 |

라)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 p.68

업종별로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표3-21>과 같이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 등은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석유산업, 화학섬유 업종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현지생산 체제로 전환된 컴퓨터(중국 내 한국계 기업의 생산 중단 등), 통신기기, 음향기기 등의 점유율은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 주: 공산품만을 포함 자료: 중국해관통계(KITA DB: www.kita.net). 2009. p.39

<표3-21> 제조업 업종별 중국 대한 수입과 한국산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 대한 수입액 | | | | 한국산 시장점유율(%) | | |
|---------------|--------|--------|--------|-----------|--------------|------|------|
| | 2007 | 2008 | 2009 | 증 감 륜 (%) | 2007 | 2008 | 2009 |
| 제조업 | 23,085 | 61,901 | 76,591 | 23.7 | 11.9 | 12.8 | 13.8 |
| 가공농부산물 | 14 | 15 | 14 | -4.3 | 0.6 | 0.3 | 0.3 |
| 식품 | 29 | 58 | 75 | 28.7 | 6 | 5 | 6.3 |
| 음료 | 2 | 6 | 9 | 36.2 | 1 | 2.4 | 2.1 |
| 담배 | 0 | 4 | 3 | -16.5 | 0 | 1.3 | 0.8 |
| 섬유 | 1,332 | 1,522 | 1,592 | 4.6 | 15.6 | 13.4 | 13.3 |
| 의류및신발 | 105 | 131 | 124 | -4.9 | 11 | 12.5 | 11.6 |
| 가죽 모피 | 938 | 668 | 623 | -6.9 | 34.9 | 17 | 14.8 |
| 목재 | 66 | 39 | 15 | -63 | 3.2 | 1.7 | 0.6 |
| 가구 | 5 | 47 | 63 | 34.2 | 2.9 | 9.3 | 11.6 |
| 종이 | 771 | 543 | 448 | -17.4 | 11.6 | 5.5 | 4.2 |
| 인쇄 기록매체 | 24 | 16 | 19 | 17.5 | 7.4 | 4.4 | 4.5 |
| 문교 체육용품 | 35 | 52 | 47 | -8.4 | 10.5 | 7.9 | 6.1 |
| 석유제품코크스 | 2,016 | 3,186 | 3,513 | 10.3 | 35.6 | 24.4 | 23.8 |
| 화학원료및제품 | 2,641 | 5,932 | 7,799 | 31.5 | 15.3 | 14.4 | 16 |
| 의약품 | 9 | 12 | 14 | 18.2 | 1.1 | 0.8 | 0.7 |
| 화학섬유 | 1,731 | 1,327 | 1,239 | -6.6 | 25.6 | 18.4 | 17.6 |
| 고무 | 172 | 361 | 549 | 52 | 13 | 11.1 | 14.6 |
| 플라스틱 | 2,632 | 4,875 | 5,860 | 20.2 | 18.2 | 17.4 | 17.6 |
| 비금속광물 | 171 | 307 | 263 | -14.4 | 9.6 | 9.5 | 7.8 |
| 철강 | 1,966 | 4,671 | 5,170 | 10.7 | 17.5 | 16.5 | 16.2 |
| 비철금속 | 694 | 1,492 | 2,011 | 34.8 | 8.1 | 8.2 | 9 |
| 금속제품 | 100 | 247 | 310 | 25.4 | 13.2 | 12.1 | 12.6 |
| 일반기계산업 | 708 | 2,345 | 2,581 | 10.1 | 6.7 | 8.4 | 8.5 |
| 특수목적기계 | 664 | 2,226 | 1,963 | -11.8 | 5.2 | 6.9 | 6.7 |
| 교통운송기기 | 125 | 1,587 | 2,138 | 34.7 | 2 | 8.1 | 10.7 |
| 자동차 | 112 | 1,508 | 2,095 | 38.9 | 3.3 | 11.7 | 17.4 |
| 조선 | 7 | 73 | 37 | -49.8 | 2 | 7 | 7.5 |
| 우주항공 | 4 | 0 | 0 | -52.7 | 0.2 | 0 | 0 |
| 전기기기 장비 | 461 | 1,547 | 1,986 | 28.3 | 6 | 8.6 | 9.8 |
| 가전기기 | 38 | 127 | 173 | 36.6 | 4 | 6.2 | 8 |
| 전자통신 | 5,303 | 19,799 | 27,097 | 36.9 | 9.3 | 12.1 | 13.5 |
| 통신기기및설비 | 202 | 1,100 | 701 | -36.2 | 3.2 | 15.9 | 10.7 |
| 컴퓨터 | 574 | 2,137 | 2,545 | 19.1 | 5.8 | 7.6 | 7.6 |
| 반도체 | 3,081 | 1,0226 | 16,077 | 57.2 | 14.6 | 13.8 | 16.9 |
| 전자부품 | 527 | 4,021 | 5,425 | 34.9 | 7.3 | 17.6 | 18.6 |
| 음향기기 | 458 | 600 | 616 | 2.7 | 15.7 | 8.7 | 7.2 |
| 기타전자통신제 | 460 | 1,714 | 1,733 | 1.1 | 4.9 | 7 | 6.5 |
| 정밀기기 | 210 | 8,743 | 10,910 | 24.8 | 3.8 | 26.6 | 25.7 |
| 공예품및기타제 조업 | 164 | 142 | 156 | 9.7 | 10.6 | 4.2 | 3.7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 p.67

3. 시사점

첫째, 중국의 시장변화에 맞춘 새로운 대중 주력 수출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수출구조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차별화된 수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핸드폰을 위시한 무선통신기기라든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등의 디지털제품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입 증가품목에 대한 대 중국 수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최근 중국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액정디바이스, 광섬유, 반도체, 프린터 등 IT관련제품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 중국 수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생산기지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의 경우 수출확대에 따른 기초 소재 및 부품 수입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경쟁을 피하고, 핵심 부품 및 소재, 중간재 공급에 특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둘째,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역수입에 대한 대비를 보면, 중국이 국내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저가상품의 한국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전자관, 전기기계, 가정용 전기기기 등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무역과 투자의 결합을 통한 대중국 교역 확대 필요하다. 중국이 세계 유수 다국적기업의 생산 및 글로벌 소싱 기지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만으로는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 주력 수출제품의 중국 내 경쟁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1/3이상이 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중국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결합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내의 다양한 경로(중국 내의 중국계 및 다국적 유통기업 등)를 통한 수출활로 등 새로운 수출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수출 확대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비스분야, 특히 유통 분야에 대한 진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의 수입대체 가능 분야에 대한 현지생산 강화 필요하다. 중국의 국내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산에 의한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석유화학, 특수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현재 한국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중국 투자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중 간 무역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되었다.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WTO 체제하에서 무역인프라의 확충은 어느 때보다 유용한 무역확대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 간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관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이 동시에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무역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간 전자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IT 인력 교류, 기술제휴 및 공동 기술개발, 데이터 공유와 표준화 등의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중국 통상협상 능력이 강화되었다. 플라스틱 관련제품, 화학섬유, 철강제품 등 중국 내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저가 수출을 지양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 압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15건의 반덤핑,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금년 들어 중국이 조사를 개시한 9건 중에서 8건이 한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WTO가 인정하는 규제조치인 반덤핑과 세이프가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해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중국 통산관련 전문가 육성과 함께 정부내 관련업체, 협회 등을 포함하는 ‘대 중국 통상전문 포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4장 한·중 교역분쟁의 현황 및 사례

제1절 한·중 교역분쟁 현황과 원인

1. 한·중 교역분쟁 현황

양국 간의 경제교류 확대 추세에 수반하여 교역분쟁의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중국 측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온 대한 무역역조에 대해,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무역통계를 통하여 살펴보면, 한국은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2년 무역흑자는 64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무역흑자의 61.4%를 차지했다. 2003년 들어서는 흑자규모가 더욱 커져 2008년 기준으로 이미 235억 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대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 대한 무역 적자는 81억 달러에 달하며, 2008년 대한 무역적자는 38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국 입장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상당 부분은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의 빠른 증대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대중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점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양국 간 무역량의 확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중국 제품 특히 중국 농수산물에 대해 통관상의 편의와 우대를 확대하고 관세 비관세장벽을 낮춘다면 중국의 대한 수출이 증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마늘 분쟁은 이러한 양측 간의 견해 차이가 조정된 분쟁 사례였다. 양국 간 분쟁 증대의 또 다른 원인은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수반하여 전자, IT, 철강, 석유화학 등 경합분야가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양국 간 경제교류에서 상호보완 부문보다 경쟁부문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경제 모두 고속성장 속에서 공업화와 산업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불가피한 변화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중국 대한 반덤핑 제기가 증가하는 데서 확인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 반덤핑 제기 건수는 2008년까지 18개 품목의 반덤핑 최종판정과 6개 품목의 조사대상 품목이 있는데, 이중 한국

과 관련된 것은 19개 품목에 달하고 있어,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 제소 대상국이다.

한·중 간 교역분쟁 증대문제는 앞으로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구조는 한국이 중국으로 부품과 소재를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조립 또는 가공된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으로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부품과 소재를 현지조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속히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공업화와 산업구조 조정, 기술경쟁력의 빠른 향상 수세를 감안할 때, 현재 중국의 대한 반덤핑규제 품목이 수년 후에는 한국의 대중 반덤핑규제 품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국은 인접국으로서 통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확대심화라는 장기 비전을 지향하여 가급적 상대방에 대한 개방과 우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적인 장치로써 양국 간의 무역원활화 내지 통관상의 우대 편의 확대, 무역장벽완화를 촉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중 교역분쟁 원인

첫째, 농업부문의 취약성은 농업에 관한 국제협상은 늘 다른 분야의 협상 후로 미뤄졌다. 또한 식량안보라는 취지에서 생산성이 낮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즉, 생산성이 높은 일부국가들은 농업에 대한 협상에 적극적이며, 그렇지 않은 국가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더 이상 농업에 대한 보호차원에 한계가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WTO체제에서의 뉴라운드 협상이 그것이다. 한·중 마늘 분쟁은 이런 이유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물론, 중국이 한국에 비해 재 배면적과 생산량이 많은 현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인지 측면에서 끝난다면 과연 농업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전쟁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협상전략상의 부적절할 세이프가드 제도는 국내산업의 일시적인 보호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수입국과 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한다. 현재 무역위원회의 구성으로는 밀려오는 시장개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세이프가드제도와 무역위원회는 상충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로 국내산업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역위원회가 한국의 산업보호와 구조조정에 플러스의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업 피해조사와 산업 피해 유무의 판단에 결정적인 증거를 현재의 무역위원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역위원회가 지닌 독립성과 귀속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성 문제는 현재 무역위원회의 소속이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이다. 무역위원회는 대외적으로는 일종의 국제간의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과연 현재의 무역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다.

셋째, 이익집단의 개입이다. 한·중 마늘 분쟁이 한국 농민을 자극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이익집단의 개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의 세이프가드는 발동에 따른 보복 조치로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을 수입금지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 개입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의혹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발동과 그 만료일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넷째, WTO 규정의 모호성이다. WTO 체제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체제하에서의 세이프가드 제도는 개발도상국 내지는 일부 품목에 대해 생산성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서 피해의 정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동기간의 문제이다. 발동기간을 원칙적으로 4년으로 규정한 것은 피해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용이성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또한 이 발동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한 선진국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해준 또 하나의 요인이다.

다섯째, 한·중 간 무역구조의 변화이다. 양국 간 무역 분쟁 증대의 또 다른 원인은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수반하여 전자, IT, 철강, 석유화학 등 경합분야가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즉 양국 간 경제교류에서 상호 보완부문보다 경쟁 부문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경제 모두 고속성장 속에서 공업화와 산업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불가피한 변화이다.

양국의 교역상품구조면에서 상호보완보다 상호경쟁적인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은 수출과 수입에서 동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자본재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경우를 보면, 중국이 한국에 광물자원, 농산물, 섬유제품 등 원자재를 제공하는 저개발국이 아니고,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같이 고부가가치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2절 한·중 교역 분쟁 사례분석

1. 한·중 농산물 분쟁사례

한·중 무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인접성 등의 이유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농산물 교역의 특성이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입증가는 한·중 간 농산물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최근 발생한 한·중 간 농산물 통상마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1) 마늘 사례

한·중 간 대표적인 통상 마찰은 촉발된 '마늘파동'이다. 정부는 당시 한국국내 마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깐 마늘과 냉동 및 초산제조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²⁰⁾

한·중 마늘분쟁은 농협중앙회가 산업 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마늘의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농

20) 이준영 이상혁 마광,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1. pp.20-25

민단체와 정치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잠정 조치를 정식 세이프가드를 전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는 세이프가드를 2003년 5월까지 발동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며칠 뒤 중국은 즉각 반격을 해왔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출상품이던 휴대폰 폴리에틸렌 등 2개 품목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을 풀기 위해 중국 정부의 굴욕적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휴대전화 등의 수출금액이 중국산 마늘 수입액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정식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겨우 한 달 여만에 철회를 하게 된 셈이다. 서명한 합의문 부속서에 2003년부터 한국 민간 기업이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국내 마늘농가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합의이후의 마늘농가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적당히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서 후에 큰 과문을 가져왔다.

(1) 사건 발생원인

양국 간의 분쟁은 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하여 피해조사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정부는 농협의 피해조사 요청에 따라 중국산 냉동마늘 등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절차에 따라 중국과 WTO에 이러한 일련의 조치사실을 통보하였다.

전체적으로 마늘 수입량은 증가하였다. 특히 냉동, 초산 마늘의 경우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하여 대량의 물량이 수입되었다. 단순 처리된 가공마늘을 수입한 후 신선마늘의 용도로 대체하려는 수입업자의 이윤동기와 더불어 냉동설비 등을 설치하면서까지 수출을 적극 추진한 중국 측의 노력에 힘입어 냉동마늘의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무역위원회는 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국내 마늘산업 피해를 인정하여 긴급관세부과를 결정하였다. 이것은 중국 측의 입장을 고려 긴급관세를 WTO가 규정한 국내외 가격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재정 경제부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통상교섭분부를 통해 중국과 두

차례의 양자협의를 거친 후 긴급관세부과를 최종 결정하고 WTO와 중국에 통보하였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했다. 한국의 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고,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몇 년 전부터 그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2) 처리결과

외교부는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미 소진된 민간쿼터 물량 1만300톤을 당초 중국 측 요청시한인 6월말보다 다소 늦춘 8월말 이전에 도입키로 했다. 도입하는 마늘 품목은 한국 측이 수입한 마늘 처리에 대해 융통성을 갖기 위해 신선마늘을 추가해 신선, 냉동 또는 초산저장마늘로 정했다. 수입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계부처 및 업계가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조정관계문제와 수입입찰제도상의 기술적 제한 등의 비관세 장벽과 반덤핑조사 및 판정의 신중한 처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청해와 한국 측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이 반덤핑 등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문제를 교훈 삼아 향후 양국 간 통상문제에 대해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대화와 협조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양국 간 통상현안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해 상호 협의키로 했다.

2) 김치 사례

김치가 한·중 교역분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국에서 제조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김치에 각종 이물질과 기생충 알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성급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체면을 세계적으로 손상했다. 한국은 기생충 알이 어떠한 경위로 생산된 제품에서 나왔는지 얼마만큼 위험한지 또 그 생산시설은 누구의 소유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전체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 파급효과와 대처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고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1) 분쟁의 경위 및 원인

중국산 김치의 한국 수출은 2005년 7만6천 톤에 이르고, 2006년에는 2,155만 달러가 수출돼 2008년 137% 증가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5년 중국산 수입김치

일부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어 중국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의 파문이 커지고 국내산은 괜찮으나는 의문이 확대된다. 기생충 전문가 2명의 자문을 얻어 국산 김치에 대한 기생충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정부는 기생충 알은 시간을 다룰 정도로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더구나 미성숙란만 검출되어 인체 감염무려가 전혀 없다며 분쟁을 완화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유해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발표해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에 앞서 2004년 중국산 수입김치가 국내산에 비해 납 함유량이 최대 5배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어서 식약청은 서둘러 과잉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산 김치만 해도 502개 품목이나 되는데 중국산을 포함해 58개 제품의 납 함유량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김치가 안전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중 김치분쟁이 교역분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국 간 극심한 갈등이 우려되었으나, 양국의 무역 조건 및 관행이 크게 달라진 만큼 김치분쟁이 더 격화되지는 않았다.

중국산 김치 재료로 쓰이는 배추와 무는 주로 산둥성과 요녕성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곳 수만 가구의 크고 작은 농가에서 배추와 무를 김치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내 한 농업 전문가에 의해 중국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인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분 상용이 김치에 기생충 알이 묻어 있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임이 밝혀졌다. 중국에서 인분으로 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포기마다 인분을 조금씩 주는 방법, 인분을 밭에 뿌린 뒤 흙을 뒤잡는 방법, 그리고 퇴비에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이다. 이중 퇴비에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 외에는 기생충 알이 배추와 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분 재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재배를 하도록 해야 한다.

불량 김치를 양산하는 영세한 중국내 김치공장은 100곳이 넘는다. 이들은 주로 산둥성 및 요녕성에 몰려 있다. 북경 인근에도 국내 유명 브랜드와 북한의 해당화 김치공장이 있지만 한국에 수출되지 않는다. 한국시장을 겨냥한 김치는 산둥성과 요녕성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이다. 산둥성의 경우 청도 및 연대에는 60여 곳이 넘는 김치공장이 성업 중이다.

이들 공장은 한국인과 중국인 조선족에 의해 운영된다. 불량 김치가 주로 만들어지는 곳은 영세한 김치공장이다. 한국인과 조선족이 경영하는 김치공장 중 일부가 이 부류에 속한다. 오히려 중국공장 중에는 위생시설이 완비된 초대형 공장이 많다. 일본자본이 투입된 대형 중국 김치공장도 8군대에 이른다. 이들 공장에서는 가공 야채와 김치를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김치 파동이 중국의 대한국 김치산업을 위축시키고 중국의 대형 김치공장이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치 파동 이후 중국 정부가 강력한 위생기준을 적용, 한국인과 조선족에 의해 운영되는 영세 김치공장을 퇴출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불량 김치 파동에 중국 검역당국이 보복조치로 식품의약품 안전성에 국내산 화장품의 안전성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김치공장이 하루에도 한 곳이 생기고 한 곳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치 공장의 부침은 심하다고 안다. 한국과 조선족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일수록 이 같은 일이 허다하다. 한국 국내 수입업자의 김치 수입 가격 경쟁도 문제다. 북경에서 김치를 생산하는 생산원가는 kg당 2400원 안팎이다. 그러나 산둥성에서 국내 수출을 위해 가격에 김치를 만들어야 하나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지하수를 이용, 큰 통에 담긴 배추를 발로 씻고 녹슨 기계로 김치를 담그는 중국 김치공장의 현주소는 수입업자들의 이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 분쟁의 처리 및 결과

김치 파동 이후, 중국은 김치 제조업체가 생산시설의 위생을 강화하지 않는 한 생산 허가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 라기 보다는 실리적 이익에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자금이 모자라 도산하게 될 한국 업체를 중국 기업이 인수, 중국 자본이 세계적인 먹을거리 김치산업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였다. 결국 중국산 김치가 비위생적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서 촉발된 양국의 교역분쟁은 한국 김치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김치 분쟁은 한국과 중국 정부 간에 식품검역협의를 발족시켰다. 한국 통상교섭 본부와 중국 국가질량검사총국의 차관보급 이상이 대표를 맡는 고위급 식품검역협의를 발족을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것이다. 한국은 김치문제가 중하관

계 전반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중국도 공감을 표시했다. 양국은 김치문제가 교역분쟁 등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찾아서, 고위급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한 것이다.

식품검역협약의 대표로 한국 쪽에서는 차관보와 중국은 질검총국의 차관급이 임명되었다. 중국 측이 김치 분쟁을 적절한 선에서 봉합하였고, 한·중 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었다. 중국산 김치의 압 검출에서 국내산 김치의 기생충 알 검출로까지 이어진 최근의 김치 분쟁은 유해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하는 등 식품안전 당국의 경솔한 대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교역분쟁에 따른 자국의 막대한 무역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과 중국 양국은 각각 김치 파동이 교역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원했다. 특히 양국은 이미 농수산물 검역 분제를 해결할 기구로 한·중 검사 검역에 관한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중 무역규모 확대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문제 등이 교역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늘 파동 당시처럼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김치 분쟁이 마늘파동처럼 악화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 양념장 등의 식품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며 보복적인 조치로 수입 금지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내 업체들은 김치제품을 중국에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한·중 양국 간에 김치를 놓고 미묘한 갈등을 보이는 수준이었다. 중국의 추가 조치에 따라서는 개별 상품 분쟁을 넘어 한·중 교역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식품 안정을 거론하고 있지만, 통상보복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한·중 간 반덤핑 사례

1)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 현황 및 분석

중국이 2009년까지 발동한 반덤핑 규제 건수는 총 53건이며, 이 중 대한민국 반덤핑제소 건수는 32건으로 한국은 중국의 최다 반덤핑규제 대상국이다.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제소 건수는 2002년 8건으로 가장 많은 제소 건수를 기

록하였으나 중국의 무역흑자가 증가하고 석유화학 등의 부문에서 중국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2005년에는 제소 건수가 2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²¹⁾

최근에는 신규 반덤핑제소 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기존 규제 건에 대한 재심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규 제소 건수는 2002년 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에는 5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재심건수는 2005년에는 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에는 4건으로 원심 건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대한민국 신규 제소 건수는 2008년 1건에 불과하나 재심 건수는 3건으로 오히려 원심건수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섬유류가 3건, 철강과 전기전자가 각각 2건으로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규제는 주로 소재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1/3이상을 차지하는데 거의 전 품목이 반덤핑제소를 당했다. 철강의 경우 건수로는 1건이나 금액 기준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이므로 반덤핑규제로 인한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²²⁾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제기한 36건의 반덤핑제소 건수 중 현재 규제를 받고 있거나 조사 중에 있는 건수는 25건이며 9건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조사중지 되었다.

중국의 반덤핑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높은 반덤핑관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여 중국 측에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1) 중국 대한민국 반덤핑 사례

<표4-1>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 규제

| 조사품목 | 조사개시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다른 조사대상국 | 덤핑 마진율 |
|---------|--------|---------|----------|----------|--------|
| 폴리스티렌 | 2005.2 | - | - | 일본, 태국 | 무피해종결 |
| 라이신 | 2005.6 | - | - | 미국, 인니 | 무피해종결 |
| 폴리에스터 칩 | 2005.8 | 2005.10 | 2009.2.8 | - | 5%~52% |

21) 최근 중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9. pp35-40

22) 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2009. pp42-44

| | | | | | |
|----------------|------------|------------|-----------------------|-------------------------------|---------|
| 플리에스터 단 섬유 | 2005.8 | 2005.10 | 2009.2.8 | - | 2%~48% |
| 아크릴산 에스테르 | 2005.10 | 2005.12 | 2009.4.10 | 싱가포르, 말린, 인니 | 2%~49% |
| 아트지 (동판 지) | 2009.2.6 | 2005.11.27 | 2005.8.6 | 미국, 일본 | 4%~51% |
| 무수프탈산 (P.A) | 2009.3.6 | 2009.1.7 | 2009.9.2 | 일본, 인도 | 0%~13% |
| 합성고무 (SBR) | 2009.3.19 | 2009.4.16 | 2009.9.9 | 일본, 러시아 | 7%~27% |
| 냉연강판 | 2009.3.23 | 2009.5.20 | 2009.9.23 | 대만, 러시아, 우 크라이나, 카자흐 스탄 | 0%~40% |
| PVC | 2009.3.29 | 2009.5.12 | 2009.9.23 | 일본, 대만, 러시 아, 미국 | 6%~76% |
| TDI | 2005.5.22 | 2009.6.10 | 2005.11.22 | 일본, 미국 | 3%~49% |
| 페놀 | 2005.8.1 | 2008.6.9 | 2008.2.1 | 일본, 미국, 대만 | 3%~144% |
| MDI | 2005.9.20 | - | 조사 종결 (2005.11.28) | 일본 | 무피해종결 |
| 클로로포름 | 2009.5.30 | 2010.4.8 | 2010.5.14 | 미국, 인도, EU | 16%~96% |
| 광섬유 | 2009.7.1 | - | 2010.6.16 | 미국, 일본 | 7%~46% |
| 히드라진 히드 레이트 | 2009.12.17 | - | 2010.6.17 | 일본, 미국, 프랑 스 | - |
| 골판지 | 2010.3.3 | - | - | 미국, 태국, 대만 | - |
| 비스페놀 A(BPA) | 2010.5.12 | 2009.11 | - | 일본, 러시아, 싱 가포르, 대만 | 무피해종결 |
| EPDM | 2010.8.10 | - | - | 미국, 네덜란드 | - |

자료: 저우예페, <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한·중 무역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 2010년. p.86

중국의 최초의 한국과 관련되는 반덤핑 사건은 중국이 한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산 신문지에 대해 조사했다. 한국은 한술제지가 예비판정에서 받은 11.11%의 덤핑 마진이 최종에서 9%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다른 회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55%의 덤핑 마진율을 부과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2009년 6월 30일에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온 한국, 미국, 캐나다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²³⁾ 중국의 6개 업체가 플리에스테르에 대해 제소한테 중국 외경무부는 SKC에 대하여 21%, (주) 코오롱, (주) 세한, (주)효성 3사와 기타 한국 회사

23) 외교통상부, "중국,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 2009년. pp.38-40

에 대하여 72% 덤핑 마진을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SKC에 대하여 13%, (주) 효성, (주) 세한에 대하여는 33%, (주) 코오롱과 기타 회사에 대하여 46%의 덤핑마진을 부과하였다. 2006년에 또 한국의 냉간 압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해했다. 2009년 말까지 중국은 3,865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해하였고, 그 중에서 하중과 관련되는 것은 125건이 있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최대 반덤핑 신소 국으로 되었다. 24)중국의 대 한국 반덤핑 규제는 석유화학 제품, 철강제품, 종이제품, 섬유 제품 및 전자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제품은 16건으로 71%를 차지하고 종이 제품은 3건으로 13%를 차지하고 철강제품은 2건으로 8%를 차지하고 섬유 제품 및 전자제품은 모두 1건으로 4%를 차지했다.

(2)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규제 동향

중국은 반덤핑법 제정 이후 한국에 대해 총 30여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한국은 20여건의 반덤핑 조사 및 규제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의 반덤핑규제 대상국이다.

<표4-2> 중국의 주요국별 반덤핑규제 현황

(단위: 건)

| 국가명 | 규제중(A) | 조사중(B) | 총계(A+B) | 조사종결(C) | 총계(A+B+C) |
|-----|--------|--------|---------|---------|-----------|
| 한국 | 15 | 4 | 19 | 3 | 22 |
| 일본 | 10 | 5 | 15 | 2 | 17 |
| 미국 | 9 | 4 | 13 | 1 | 14 |
| 러시아 | 5 | 2 | 7 | 0 | 7 |
| 대만 | 4 | 2 | 6 | 0 | 6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 p.69

중국의 반덤핑규제를 국별로 살펴보면 19건으로 한국이 가장 많으며 일본 (15건), 미국(13건) 순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사 규제 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 12건, 종이 3건, 철강 2건, 기타 2건순으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전체 수출의 1/3이상이 대 중국 수출로 중국의 규제 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4) 이검, "[한중 무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10년. pp.52-55

(3)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제소가 많은 요인 분석

① 양국 간 무역결합도 심화

한·중 무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양국 간 무역 관계가 점차 심화되자 상호간 교역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교역분쟁은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은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가 간 상호 무역의존 관계가 약한 경우 양국 간 무역마찰 발생 가능성은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4대 교역국이다. 이러한 양국 간 무역 상호의존 관계는 지역화계수를 통해 측정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중 양국 간 강한 지역화 계수는 경제 결합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한편, 상호 무역 분쟁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지속적인 대중국 무역흑자

한·중 양국의 교역은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급속한 교역증가는 한편으로 양국 간의 교역분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제1의 수입규제 대상국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 중국 무역수지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중국은 2009년 교역량 기준으로 한국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여섯 번째 교역대상국이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 중국 측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불균형 문제를 양국 간의 최대 통상현안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에게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반덤핑규제를 통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중국경제의 성장기 지속, 한·중 산업 내 분업에 따른 부품 소재 수출증대,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대중국 수출여건이 나아질 것을 감안할 때 이상과 같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③ 소수 품목의 대중국 수출 집중과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반덤핑 규제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이 석유화학 등 일부 소수품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한국국내 업체 간에 과도한 경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2003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상위 10대 수출품목이 대중국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3.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석유화학제품과 산업기계 그리고 철강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3.7%, 33.9%, 32.0%로 지나치게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는 중국시장에서 원가를 밀도는 납품가를 제시하면서 이미 확보한 고객을 빼앗는 등 국내업체간의 과도한 경쟁과 출혈 수주를 유발시키게 되어, 동 품목들이 중국의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4-3> 20대 수출상품 중 대중국 수출의존도 상위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세계전체수출순위 | 수출품목 | 전체수출 | 대중수출 | 대중수출비중 |
|----------|-----------|--------|-------|--------|
| 5 | 석유화학제품 | 11,917 | 5,207 | 43.7 |
| 9 | 산업기계 | 5,023 | 1,705 | 33.9 |
| 6 | 철강제품 | 9,282 | 2,973 | 32.0 |
| 11 | 기초산업기계 | 3,314 | 960 | 29.0 |
| 12 | 정밀화학제품 | 3,303 | 815 | 24.7 |
| 18 | 제지원료및종이제품 | 1,856 | 399 | 21.5 |
| 1 | 산업용전자제품 | 35,862 | 7,223 | 20.1 |

자료: 품목분류는 MTI 2단위 기. 2009. p.76

④ 중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한·중 양국 간 경쟁격화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제소 증대의 또 다른 원인은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수반하여 전자 IT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에서 한·중 양국 간에 경합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 간 경제교류에서 상호 보완부문보다 경쟁부문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양국경제 모두 고속 성장 속에서 공업화와 산업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불가피한 변화이다. 중국의 산업경쟁력은 한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였지만 WTO 가입과 중국 정부의 주요 산업육성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한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시장 및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시장 내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격화는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제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

간의 산업경쟁력 비교는 무역특화지수와 양국 간 수출경합도 및 기술경쟁력 그리고 제3국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통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향후에도 행해지던 중국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인하여 많은 기술들이 중국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중 간 기술경쟁력 격차는 급속히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수출측면의 경쟁력 비교지표인 시장점유율을 세계 주요시장인 미국 및 일본시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중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본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이 소폭 하락한 반면, 중국은 6.6% 상승하여 중국 상품이 세계주요 시장에서 그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그 동안 한·중 양국 간의 기술격차로 인하여 한·중 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했던 중국산 제품과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차츰 해소되면서 한·중 양국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제품이 중국에서 반덤핑제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⑤ 중국 정부의 한국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 노력

중국 전자·전기 류 부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는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해온 이후부터 중국의 수출증대가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수직적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의 교역상품구조가 향후 기존의 한일 무역관계와 유사한 형태로 고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국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중이며 그 방안의 하나로써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중국의 반덤핑 제조 및 판정의 대부분이 화학, 철강 등 부품 소재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등 산업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육성의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품 및 소재산업에 대한 중국의 빈번한 반덤핑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부품 및 소재업체의 중국진출을 적극 유도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 확보에 주력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한·중 양국 간 무역구조는 중국의 산

업육성정책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소재와 부품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완공이후에는 원자재와 부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국의 대중국 반덤핑 현황 및 분석

한국은 총 192건의 반덤핑제조를 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반덤핑제조건수는 46건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다 반덤핑제조 대상국이며 일본은 36건, EU는 23건을 기록하고 있다.²⁵⁾

표<4-4> 한국의 국가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 대상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기타 국 |
|-------------|----|----|----|----|----|------|
| 반덤핑 제조건수 | 46 | 36 | 23 | 24 | 11 | 74 |

자료: 무역위원회 무역구제통계. 2009. p.52

대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를 살펴보면 화학부문에 대한 조사신청이 13건, 기계 및 전자제품에 대한 조사 신청이 9건 등으로 화학, 기계, 전자 부문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4-5>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 구분 | 화학 | 기계전자 | 광산물 | 생활용품 | 섬유 | 제철금속 | 기타 | 총계 |
|----|----|------|-----|------|----|------|----|----|
| 중국 | 13 | 9 | 10 | 4 | 3 | 1 | 8 | 48 |

자료: 무역위원회 무역구제통계. 2009. p.43

총 48건의 대중국 반덤핑조사 건수 중 15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었고 11건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반덤핑조치 품목은 화학, 기계,

25) 서동혁, '한국 중요산업 대중 수출확대 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pp.45-50

전자가 대부분이며 이 품목들은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① 한국의 대중국 반덤핑 사례

이러한 반덤핑조치 품목은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품목이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몇 가지 주요 품목의 반덤핑조치 이후 수입추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반덤핑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반덤핑 조치가 완료되는 2001년부터는 가격약속 5년이 추가적으로 확정됨으로서 대 중국 전기면도기의 수입은 기존의 수입액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그 이후 수입액은 가격약속 기간이 만료되었던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7년 577만 달러, 2009년 778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② 한국의 대중국 반덤핑 제소원인

한국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급속히 증가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 많을수록 반덤핑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20%가 넘는다. 수출액이 증가하면 한국 산업과 경쟁품목이 많아지며, 수출상품의 수량이 많아지면 반덤핑피소 건수도 많아지게 된다.

3. 지적재산권 사례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중국시장은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기업이 쉽게 저지를 할 수 있는 장애요인은 상대국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없이 한국의 문화나 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문화적 충돌이라고 할 것이다. 문화적 충돌이란 자국의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현지 문화요소에 대한 배려 없이 추진되는 경영활동에 의한 피해를 말하며, 반대로 문화적 자각이란 기업 활동에 있어서 문화요소의 보편성과 현지성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를 통한 관계 및 성과 지향적 마케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한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

수준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로 진출할 때 우선 현지문화와 현지의 법 제도적 규정을 파악하여야만 정확하게 자신의 역량을 분석하게 되며 대응방안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문화적 충돌을 기회로 이용하면 상당한 성과 지향적 대응방안이 유도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문화적 자각이 취약할 때는 위기경영능력을 상실하여 심각한 위험상황에 사전 및 사후의 해결방안이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동일한 문화권이면서도 오랫동안 민족적, 역사적 자립에 의한 정체성이 완전히 차별화된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으로 사회제도, 법규수준, 언어, 생활방식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제도적 법규와 사회적 관행 등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운용상황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불법 복제는 이들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한국제품에 대한 모방과 표절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달해 있다. 뮤직비디오부터 과자, 맥주, 유니폼, 웹사이트, 자동차까지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타 회사의 디자인을 모방해서 시판한 중국 자동차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내 PC방 업주와 개인 이용자들이 서버를 통째로 복제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업체와 계약을 맺은 중국 기업에서 핵심기술을 이 전시키는 경우가 있다. 한국 온라인 게임 '라키아'의 경우 중국 신문출판총서로부터 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했지만 중국 문화무의 허가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중지 및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국 경제 급속 발전에 수반하여 한국 상품의 인지도는 해외에서 증가했다. 한국 기업들이 상표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가치도 상당히 높아졌다. 현재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대부분 중국과 관련되고 있다. 그중에서 상표권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등록된 의장권이 간헐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양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중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3년 SDNA(중국 성파 회사) 및 한국 Actoz회사의 인터넷게임의 분쟁이다. 이번 분쟁의 기원은 '전지'의 원코드를 누설했기 때문이다. 2002년9월에 '전지'의 원코드를 누설하게 되었는데

중국 운영상인 SDNA회사가 한국개발성인 Actoz회사와 관리의 부당 때문에 이번 사건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한국 측은 중국 경영상의 SDNA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싱가포르 상업 위원회에 종재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8월에 의외 적으로 화해를 달성하였다. 쌍방은 싱가포르에 신청한 종재를 철회하고 계약을 계속 체결하였다. 이번 지적재산권 분쟁을 통해 한·중 양국의 기업의 협력하는 데에 아직 많은 기술 및 관리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알 수 있다.

1) 사건발생원인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수출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게임 산업, 특히 온라인게임을 많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는 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중국게임시장에 진출하기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 'Wemade사'와 'Atcotz사' 공동 개발한 '미르의 전설 2'의 온라인 게임이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2) 처리결과

첫째,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전기세계'가 온라인 게임의 핵심인 캐릭터, 레벨 상승방법, 캐릭터 육성법, 아이템, 그래픽, 사운드 등 게임의 100여 항목에 '미르의 전설' 시스템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유사한 중국어 '傳奇'라는 상표는 '미르의 전설' 중국어 버전인 '熱血傳奇'와 유사상표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불공정경쟁법의 위반문제로 주요내용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허위홍보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포괄적인 쟁점이다.

3) 시사점

첫째, 'Wemade사'와 Atcotz사'가 공동 개발로 인하여 '전기'에 대한 공동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Wemade사'가 'Atcotz사'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심지어 동의서마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소송자세는 지적재산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인한 대응능력의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중국관련국은 작품명에 대한 저작권법의 수정을 제한 할 수 없으며, 작품명은 단독 작품마다 개별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되는 것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하여 작품의 제목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중국의 법 제도에 저작권 내지는 저작 인접권에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 시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나치게 성급하게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겠다는 주관적 합리성에 의한 지적 재산권의 소송을 계기로 한국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중국게임운영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온라인게임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업체들의 협회까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중국 현지의 문화적 자각 없이 지적재산권 갈등을 해소하려 하다가 결국 심각한 문제의식의 부각에 그친 것에 비하여 다음에 나오는 자동차의 사례는 보다 본질적인 한국 기업들의 대 중국 문화적 자각의 과소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자동차 사례

1) 사건발생원인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그 성장속도로 인하여 세계 최고의 자동차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중국이 '시장과 기술을 바꾼다'는 전략을 통하여 유명한 외국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에 유치하여 GM과 폭스바겐 등 유명한 외국 자동차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입하여 <표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제4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표4-6> 2009년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및 판매국

| 순위 | 국가 | 2005년 국가 생산량 | 2006년 국가 생산량/세계생 산량 | 2007년 국가 생산량/세계생 산량 | 2008년 국가 생산량/세계생 산량 | 2009년 국가 생산량/세계생 산량 |
|----|-----|-----------------|---------------------------|---------------------------|---------------------------|---------------------------|
| 1 | 미 국 | 1196 | | | 20.9% | 18.50% |
| 2 | 일 본 | 1051 | | | 17.8% | 16.27% |
| 3 | 독 일 | 557 | 10.11% | 9.30% | 9.08% | 6.61% |
| 4 | 중 국 | 507 | 4.15% | 5.53% | 7.33% | 7.85% |
| 5 | 프랑스 | 370 | | 5.6% | 5.73% | 5.73% |
| 6 | 한 국 | 347 | | 5.5% | 5.37% | 5.37% |
| | 세 계 | 6642 | | | | |

자료: OICA. 2009. p.59

이러한 배경에서 GM대우 역시 자사의 경차 ‘마티즈’를 생산해 왔는데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치루이가 이를 모방해 ‘QQ’라는 이름으로 소형차를 생산, 판매하자 QQ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중단과 공개 사과, 경제손실 약 97억 원을 배상하고 해당 차량의 부당 판매수익금 전액을 몰수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GM대우는 2003년 6월 처음 마티즈 중국 조립생산을 시작한 후에 1만 2천대 정도를 판매하였다. 치루이의 QQ는 마티즈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출시되어 6만~7만대 정도가 팔려 나갔다. 게다가 체리사가 QQ를 동남아 등지에 본격적으로 수출할 경우 GM대우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GM대우는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표4-7> QQ와 스파크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

| Chery Sales 2004 vs. 2003 | | | |
|---------------------------|------------|------------|-----------|
| Products | Sales 2004 | Sales 2003 | Growth(%) |
| QQ | 49,066 | 25,186 | 94% |
| Fengyun | 23,149 | 45,930 | 49% |
| Qiyun | 5,550 | 6,926 | 20% |
| Son of the east | 8,802 | 7,307 | 21% |
| Spark | 24,487 | 12,000 | 104% |

자료: 중국공업자동차협회. 2004. p.38

2) 분쟁발생경위

GM대우는 치루이QQ의 내외장 전체와 핵심부품이 GM대우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마티즈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며 부당경쟁 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에서는 ‘시보레 스파크’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GM대우는 비슷한 시기 치루이가 출시한 QQ의 외관과 내장, 디자인과 사이즈 등이 마티즈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고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치루이측은 여러 개의 유명 자동차사이트에 마티즈의 충격실험장면을 QQ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올려놓기도 하는 등 마티즈의 시장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GM대우 측은 ‘치루이가 원고의 기업비밀을 모방, 표절, 침범하는 수법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꺾으며 원고 기업 이미지와 경제에 타격을 주는 등 기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반면 체리사의 QQ는 마티즈 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출시돼 6~7만대 정도가 판매되었기 때문에 GM대우 입장에서는 QQ의 매출이 마티즈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체리사가 QQ를 동남아 등지에 본격적으로 수출할 경우 GM대우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 있어 GM대우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3) 처리결과

GM대우는 중국에서 외관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특허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동시에 치루이는 중국에서 외관디자인을 포함해서 24가지 특허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04년 9월 ‘중국 법률제도와 GM이 제공하는 증거를 검토할 때, 현재까지 치루이에 의한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는 없다’고 발표하고 불공정경쟁행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도요타나 GM대우가 중국에서 자동차 관련 소송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들 기업이 전문 인력과 현지적 능력이 비교적 강한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중국시장을 과소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응노력이 결여되어 심각한 국제적 손실을 물론 이미지 훼손과 같은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다.

5. 세이프가드 사례

세이프가드는 즉 긴급수입제한조치이다. WTO체제하에서는 별도의 세이프가드 협정이 체결되어 세이프가드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 표현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하면 이러한 세이프가드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촉진할 목적으로도 행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제도는 넓게 해석하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두 무역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모두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 무역정책을 지칭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GATT 가맹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26)

한·중 양국 세이프가드에 관한 사례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2000년 마늘 파동이 있었다. 마늘 파동은 한국 마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깎 마늘 및 냉동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을 취한 것이다.

중국의 마늘 생산량은 전 세계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인건비가 싸고 중국의 마늘 가격은 한국의 1/3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²⁷⁾ 때 한국 마늘의 경우 통마늘로 한해 수용량의 2%~4% 정도를 50%의 관세율만 매겨 수입키로 했다. 넘는 물량부터 60%라는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당시 마늘 품목에는 냉장, 깎 마늘과 초산 마늘과 같은 품목은 30%의 낮은 관세로 매기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이 무역 분쟁이 발생한 후 양국정부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북경에서 실무 양자협상을 진행하여 최종합의서에 가서명했다. 첫째, 한국의

26) 허봉, “한국의 세이프가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7년. p.36

27)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이 협상은 상품그룹 협상과 서비스 협상을 양측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된다.

긴급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3년 동안 연간 중국산 마늘 약 3만 2000톤에 대해 30%~50%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하고, 냉동 마늘 과 초산 마늘의 경우 쿼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15%의 관세를 부과하다. 둘째, 중국은 보복조치로 시행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값싼 중국산 마늘의 공습으로 한국 마늘 가격의 하락, 또 그에 따른 한국 마늘 재배 농민들의 피해로 인해 한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피해를 줄여보고자 하였으나,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한국도 연간 5억 달러가 넘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2만 여톤의 마늘을 낮은 관세로 수입해주기로 하고 중국은 휴대폰 수입중단을 푸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중국의 보복 조치는 구제규범에 어긋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 중국은 WTO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에도 제소하거나 중재를 요청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러한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한국 로서도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한·중 세이프가드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늘 분쟁을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마늘분쟁에서 한국은 중국의 예상대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이한 태도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오히려 굴욕적으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 또한 마늘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을 때, 중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도는 예측하고 그러한 점에 대비하여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그러한 치밀함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이 전략 수출상품이던 휴대폰 폴리에틸렌 등 2개 품목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자 당황하여 중국으로 쫓아가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에 대해서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마늘분쟁이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며 무역 통상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까지 얻은 만큼 통상무역마찰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이러한 과정에서의 득과 실, 그리고 국민경제와 사회전반, 대외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세이프가드 해제에 따른 정책 방향으로는 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주아재배 보급 확산, 노동력,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종 수확기계 개발 및 보급 강화, 그리고 마늘 농가의 규모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중국산 마늘과의 품질 차별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마늘 수확 후 상품화시설 설치 지원, 마늘 포장 유통 유도, 한국산 마늘 가공제품 개발 및 소비홍보, 원산지표시제강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3절 한·중 교역분쟁사례의 시사점

1.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추이

중국 수입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정부가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소비시장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기업은 중국 소비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새로운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제품개발과 수출에 나서야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조건들을 대부분 이행해야 하는 5년의 과도기가 끝남에 따라 중국정부는 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개방정책의 변화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 고부가가치 수출 전환 노력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와 부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분야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낮은 생산비용만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국 로컬기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상품수출과 판매보다 제품관련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3. 수출 선 다변화 등 포괄적 수출전략의 수립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입대체 확대와 국산화율 제고에 대비해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입대체가 아직까지 저급기술 제품에 머물러 있어 고급기술 제품의 경우 외국의 대기업들이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경우 한국 대중 수출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산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3국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 대중국 수출증가율감소의 영향을 줄이는 포괄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제5장 한·중 교역분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1절 한·중 교역분쟁의 문제점

1. 한·중 교역불균형의 문제점

1) 한·중 교역 불균형의 현황

한국 무역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한국의 대중국 6백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 후에 대중국 무역수지는 연속 14년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누계 94억 82백만 달러에 달했다.

한국 통계를 기준으로, 수교1년 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화되어 2009년까지 16년간 매년 흑자를 유지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위 무역 흑자국이 되었다. 이렇게 무역흑자로 전환된 배경에는 중국의 고속 경제 발전 및 대외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본재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공급하는 데 기인한다. 또한, 한·중 간 기술 격차가 유지되는 한 이와 같은 무역 흑자 현상도 계속 될 것으로 분석된다.²⁸⁾

한국은 홍콩을 거쳐 중국대륙에 들어온 상품은 중국에 대한 수출에 넣지 않고 중국 홍콩에 대한 수출로 계산하였고, 한국이 홍콩을 거쳐 한국에 들어간 중국대륙 상품은 원산지 원칙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 하로 계산에 넣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 통계의 대, 중국의 통계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중국이 홍콩을 통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을 중국 홍콩에 대한 수출액에 넣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게 하였고 그 결과는 중국 무역적자보다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요인을 고려하여 한·중 양국이 홍콩을 통해 상대방에 수출하는 무역액을 각자의 상대방에 대한 수출액 중에 계산해 넣는다면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 및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확대되어 중국의 대한국의 무역적자도 감소될 수 있다.²⁹⁾

28) 이금, “한중간 무역마찰의 현황과 대응 방안”, 청주대학교, 2008년. pp.57-63

29) 朴光姬, “中韩双边贸易的发展及问题”, <当代亚太>, 2007년. pp.23-30

<표5-1>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전품목 | 63.5 | 132.0 | 201.8 | 232.7 | 209.0 | 189.6 |
| 일차산품 | -20.8 | -25.6 | -24.0 | -32.5 | -25.6 | -32.2 |
| 중간재 | 96.8 | 163.5 | 240.6 | 296.4 | 271.7 | 250.3 |
| 반제품 | 68.9 | 96.6 | 117.5 | 123.7 | 123.8 | 92.8 |
| 부품 부분품 | 27.9 | 66.9 | 123.1 | 172.7 | 147.9 | 157.6 |
| 최종재 | -12.5 | -5.8 | -14.7 | -31.1 | -37.0 | -28.4 |
| 자본재 | 13.1 | 28.2 | 26.3 | 15.1 | 25.2 | 42.4 |
| 소비재 | -30.6 | -33.9 | -41.0 | -46.2 | -62.2 | -70.7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0. p.51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일차산품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속 5년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 중간재를 보면 대중국 무역수지 계속 흑자를 보이였다. 특히, 2005년부터 2001년까지 급속하게 성장세를 보일 수 있으나 2007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였다. 최종재에서 2006년을 제외한 다른 년도 모두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자본재의 경우에는 5년간의 대중국 흑자를 보였으나 소비재의 경우에는 계속 무역적자를 보였다.

<표5-2> 기술수준별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고 위 기술 | 33.5 | 64.5 | 102.2 | 143.5 | 128.6 | 167.3 |
| 중 고 위 기술 | 32.3 | 58.3 | 86.5 | 101.6 | 108.9 | 115.5 |
| 중 저 위 기술 | 35.6 | 57.9 | 67.9 | 60.2 | 58.6 | 16.5 |
| 저 위 기술 | -20.8 | -28.2 | -40.1 | -52.1 | -68.5 | -84.9 |
| 기타 | -17.0 | -20.5 | -14.7 | -20.4 | -18.7 | -24.7 |
| 전체 | 63.5 | 132.0 | 201.8 | 232.7 | 209.0 | 189.6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0. p.79

기술 수준별 대중국 무역수지와 같이 고위기술, 중 고위 기술, 중 저위기술에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보일 수 있다. 그 중에서 고위기술 및 중 고위기술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성장세를 보였다. 중 저위 기술의 경우 2005년 8,4억 달러에 2009년 67,9억 달러로 크게 늘었으나, 2005년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2009년 58,6억 달러에 2010년 16.5억 달러로 42,1억 달러를 감소했다. 저위기술 및 기타 업종에서 5년간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해왔다.

2)한·중 무역 불균형의 원인

(1) 동아시아 무역 사슬의 변화

동아시아의 주요국가와 미국은 점차 일본으로부터 아시아의 “4소룡”까지, 중국이 동아시아의 각 경제주체에 대한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었다. 특별히, 대미국의 무역흑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미국의 무역흑자는 모두 중국으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동아시아와 미국의 무역사슬에의 진입은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의 원인중의 하나이다.³⁰⁾

(2) 한·중 수출입 상품 구조의 차이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가 있고 천연자원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입 상품 구조에 차이가 있다.

한·중 수교 초기부터 중반까지 양국 간 교역은 주로 농산물과 광물성 원료 등의 식물, 섬유원료, 석유화학제품 등의 소재류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중국에 식물 및 섬유원료,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농산물, 식물, 요업제품, 광물성원료, 철강제품을 주로 수입하였다. 양국 간 교역이 소재류 중심구조에서 부품류 중심구조,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구조에서 기술 집약적 하이테크 제품 중심구조로 변화된 것이다.³¹⁾

양국 간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상품은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원료, 전자제품 등이었으나 철강제품, 식물, 가죽·모피, 제지원료·종이 등 품목은 그 후에 수출 비중이 점점 낮아졌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농산물, 식물 등 원자재와 저부가치가 있는 품목의 수입비중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전자제품, 철강제품의

30) 이검, ‘한중 무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10년. pp.36-38

31) 양평섭,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년. p.65

대 중국 수입은 대폭 증가해 왔다.

한국은 중국에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및 자본집약적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중국에서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인 공업제품을 수입했다. 최근 중국 산업 구조가 많이 변화하여 첨단산업 비중의 빠른 증가에 따라의 대한민국은 전자제품의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확대에 따른 한국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한민국 기업은 한국으로부터 원재료 조달하고 중국에서 저임금을 이용하여 조립가공한 후 제3국에 수출하나 한국에 역수출한다.³²⁾ 원래 한국이 수출하는 상품으로 바뀌게 되며 이로 인해 중국은 이들국가 간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반면에 원재료 및 생산설비는 한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 흑자도 늘어났다. 즉, 생산지의 전환으로 인한 한국과 다른 나라의 흑자는 중국으로 이전시키게 된다.

(3) 한국 보호무역의 강화

한국정부는 27종의 농산품 및 경공제품에 대해 고액 수입조정관세를 부과한다고 정했다. 그 중 약 17종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다. 이러한 고세율로 인해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 품목으로는 농산품, 수산품, 식품 및 식품첨가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등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 상품에 대해 검사, 검역 및 안전기준을 수단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검사 검역과정에서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중국산 수입상품의 품질 및 각종규격조건에 대해,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한·중 교역장벽 문제점

1)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첫째, 중국의 관세장벽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국은 주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고 가끔 종량세 및 복합관세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크게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 등 4가지 세율이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중국 정부는 관세인하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원재료 및 농기계 등

32) 요수취, <한중 무역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우선 대, 2009년, pp.58-60

225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중국은 WTO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인하 조치를 실시해 왔다. 중국은 WTO 가입 양자협상에서 관세율을 9.4%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협상했다. 2001년 1월 중국 평균관세율은 15.3%가 이었다. 2002년 5332개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을 인하하여 12%의 평균 관세율에 달했다. 그 중에서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이 14.8%에서 11.3%로 인하되었고 농산품은 18.8%에서 18.1%로 조정되었다. 2004년 2414개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0.4%로 인하되었고 공산품 및 농산품의 관세율은 각각 9.5%, 13.8%로 인하되었다. 2005년부터 평균관세율은 9.9%로 인하되었고 공산품의 관세율이 9.0%, 농산품의 관세율이 15.3%로 인하되었다. 2007년 평균관세율은 9.8%로 인하되었지만 중국 WTO가입 당초 양자협상에서 약속한 9.4%의 관세율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관세인하 조치를 실시한 반면에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조치도 실시했다. 2007년 5월 21일 고오염, 고에너지, 자원성 제품의 수출은 억제하고, 자원성 상품, 부품의 수입을 추진하고 교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6월 1일부터 일정 품목의 수출입관세를 잠정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총 14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했다. 주로 스트레이트소강 선재, 관재, 현재 등 80여 종 철강제품에 대해 부과했던 관세율을 기준으로 5%~15%의 관세율을 인상됐다. 이외에도 천연흑연, 회토금속, 정련연, 산화디스프로슘, 산화테르븀과 일부 유색금속 페스크랩에 대해서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파라텡스켄산 암모늄, 몰리브데늄, 몰리브덴산암모늄, 몰리브덴산나트륨,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등 제품에 대해 5%~15%의 수출관세를 부과되었다. 또는 니켈, 크롬, 볼프람, 몰리브덴 및 회토금속 등 금속 원광에 대해 수출관세율은 10%에서 15%로 인상되었고 일정 철합금과 미제련압연, 형석, 비활엽수목편의 수출 관세율도 5~10%에서 10~15%로 인상되었다. 33)

둘째, 중국의 비관세장벽 역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중에서 가장 많은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비관세장벽을 철폐했으나 외국기업은 중국이 농업, 서비스 부문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투명성 등 문제가 있다는

33) 新华网, <我国将调整部分商品关税税率>, 2007년5월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07-05/21/con>

것을 지적하고 있고 교역, 투자제도 좀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예를 들면, 수입허가제도와 수량할당제도 등의 수량규제조치 이외에 강제인증제도 등의 각종 기술 표준을 통한 수입규제 등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표5-3> 중국의 주요 비관세 장벽 유형

| 유형 | 주요 내용 |
|-------|--|
| 수입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제품 수입금지(기계, 전기전자, 의류) -관세쿼터³⁴⁾실시(설탕, 섬유, 밀, 옥수수, 벼와 쌀, 면화, 화학비료 등) -수입허가증, 자동수입허가증(수입 모니터링 목적) -CD복재용 생산설비 자동수입허가제(모니터링 제도) -수입플랜트 사전신고제(심천지역) -수입허가증 발급시 민감한 기업정보요구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제 |
| 기술장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인증제도(CCC³⁵⁾) -자동차용 타이어 인증제도 -의약품 허가심사시 중국 자체규정 약전 사용³⁶⁾ -가전제품 에너지효율성 표기 부착 |
| 기술장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도어락 공안부 MA 검측 요구³⁷⁾ -수입전자제품 전자수용강제 검사 실시 -수입계량기구 형식 검증 제도 -전자제품 오염통제관리 -신규 화학대체물질 규제 -수입식품 포장 표기(중문 리벨 부착) -목재포장재 열처리 증명요구 |
| 통관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품 수입절차(강제성표준 규정) -통관지 제한(의약품, 자동차) -관제부과 기준가격 비공개³⁸⁾ -수입신고 기한 제한 및 지체금 부과 -이중세관 검사(발취검사 후 전량검사) -통관절차의 복잡상과 불투명성 -특혜관세율 불인정(일부 세관) -세관의 짧은 통관시간으로 통관지연 -과도한 통관심사 |
| 환경 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금지 -화학품 최초 수입 등록제 실시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플라스틱 수입 규제 -가전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친환경 설계와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 부과(자동차)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
| 경쟁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비료종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자국산에 유리한 경쟁조건 형성) -특정 산업에서의 국유기업 독점 -지방보호주의 존속에 따른 마케팅 제한 |
| 투자 장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및 휴대폰의 중국산 부품 기기 사용 장려 -완성차 특징 인증제도 -수입차와 국산차 겸매 금지(영업 제한) -노동이동의 경직성 |
| 정부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구매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제한 및 중국산 제품 우선 구매 |
| 지식재산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방품, 해적판 문제 -주지상표 문제 -특허 및 노하우 등 라이선스 규제 |

자료: 양평섭,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2007년 12월. p88

2)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첫째, 한국의 관세장벽이 높다. 2005년까지 한국의 관세제도는 8% 이하이다. 한국 정부는 조정과세, 보복 관세, 할당관세율, 특별 긴급관세 등 복잡한 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관세장벽이 높다. 특히 농산품 및 공업품의 관세는 다른 공

34) 관세쿼터: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35)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경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에 따라 2002년5월1일부터 중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인등대상 품목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 CCC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내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36) 의약품 허가심사시 중국 자체규정 약전 사용: 중국은 <수입의약품관리방법>에 따라 수입 의약품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의약품 허가 심사시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정 약전을 적용하고 타국가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자료의 의무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임상실험 결과를 득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37) 디지털 도어락 공안부 MA 검측 요구: 중국내 디지털 도어락은 <공안부부안제품검측집행표준>에 의건 하여 공안부 MA 검측은 통과해야 하며 그 기준에 따라 GA374-2001 전자식 도난 방지 도어락 테스트도 통과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38)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 중국은 수입품의 저가신고 및 덤핑방지를 목적으로 원유, 석유화학 제품, 야금원료, 대두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세관이 정한 가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공식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어 기업의 관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식 가격제란 세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업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1) 조정관세

한국의 <관세법>에 따라 조정관세를 특정 품목의 과도 수입으로 인해 국내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국내의 농·축산품, 수산물, 임산물 등 산업에 해를 끼치고, 환경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 사업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기본 관세에 100%이내의 조정관세를 더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관세의 상세 내용은 매년 한국재정경제부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 형식으로 공포, 시행하여 적용기한은 보통1년이다. 한국이 부과하는 수입조정 관세의 합리성에 대해 제고해 볼 가치가 있으며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할당관세율

할당 관세율 제도는 원활한 물자 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될 때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기본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할당관세제도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수입될 때에는 고 관세율을 부과하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기본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³⁹⁾ 한국은 일부 상품에 대해 높은 할당관세를 부과하였고 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였다. 중국의 농산품이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3) 농산품 특별 긴급관세

한국 재정경제부는 관세법과 관련 법령을 수정하여 2005년 1월1일부터 45가지 농산품의 수입량이 최고로 1067%의 농산품 특별긴급관세를 징수하였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들 45가지 과관세 징수 품목 중에서 21가지 품목이 중국과 관련된다. 한국은 2006년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의 품목범위와 세율을 소폭 조정하여 적용되는 품목을 44가지로 축소한다. 한국 세관의 통계에 따라 이 조치는 중국에

39) 김지수, 원종학, "할당관세 제도의 운용성과 향후 운용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년. pp.37-42

서 수입하는 것에 제일 큰 영향을 받았고 2006년 수입량은 20~50%나 감소한다.

둘째,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관세장벽 외에도 비관세장벽을 빈번하게 실시한다. 한국 정부는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장벽 외에도 비관세 장벽도 많이 설치하였다. 비관세 장벽은 주로 수입규제, 통관장벽, 기술적 무역장벽(TBT⁴⁰) 및 위생과 식물위생조치(SPS⁴¹) 등이 있다.

① 수입규제

한국 정부는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입규제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중약제품에 대해 엄격한 수입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국 약품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중국의 중약을 서약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수입회사가 수입허가증을 신청할 때 중약 제품을 생산한 원자재 및 정부구성 등을 포함하는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중약제품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농산품에 대해 수입 입찰을 실시한다.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입찰표준은 지나치게 규정하고 계약도 불합리 하여 중국 수출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⁴²⁾

② 통관장벽

2003년 7월부터 한국 세관은 수입 농산품에 대한 추출 검사율을 대폭 높였다. 수입제품에 대한 평균 추출 검사율은 3%~5%이나 농산품의 추출 검사율은 20%이고, 냉동고추와 혼합조미료의 추출 검사율은 100%로 진해하였다. 통관 전 세액심사제도 및 추출 검사 제도를 실시 하로 인해 통관시간을 연장시키고 생산비용도 증가시킨다. 중국 농산품의 한국으로의 수출에 방해 할 수 있다.

③ 기술적 무역장벽

한국기술 표준원은 한국 기업의 요구에 따라 통보 없이 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방식을 변경하였다. 중국 기업은 많은 시간 및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한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④ 위생과 식물위생조치

한국의 검사검역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 품목은 주로 농산품, 수산품,

40)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41) SP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42) 王晓璐, "中韩贸易逆差的成因及策略研究", 中国海洋大学, 2007. pp.41-43

축산물, 식품 및 식품 첨가제, 의약품 및 의약품원료 등이다.

첫째, <2004 HS 수출입 통관편람>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부분 농산품에 대해 엄격한 검역, 검사 조치를 실시하여 농산품에 함유된 농약, 중금속, 곰팡이 등의 유해물질을 검정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수산품에 대한 관리조치는 주로 '사전정밀검사통관'이 있다. 2005년 1월 한국수산물 품질 심사원은 불법유통 금지와 식품위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정밀검사통관의 품목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통관시간을 연장시켜 살아 있는 물고기의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중국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을 방해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모두 수입한 축산품에 대해 수입 검역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전 지역을 한 검역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수입하는 산품 중에서 금지하는 동식물 전염병 아니면 병충해를 발견하면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동종 상품도 수입을 금지시킨다. 한국은 어떠한 기업의 상품에서 금지한 물질을 검출되었을 때 중국의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에 대해서도 수입금지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2004년 한국은 중국의 상품에서 조류독감병원체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관련된 모두 상품에 대해 수입금지의 조치를 실시했다.⁴³⁾

3. 한·중 투자상의 문제점

1) 한·중 상호 투자규모의 차이점

2005년말 까지 한국의 대중국 실제적으로 사용한 투자액은 311억 달러이었으나 같은 시간 중국의 대한국 실제적으로 11.5억 달러의 투자액을 사용했다. 따라서 양국 투자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큰 차이점으로 인해 양국 상호 투자 및 무역의 확대를 방해되었다.

중국이 한국에 진출한 기업 수가 적으며 주로 무역과 관련되는 운송 서비스, 무역 대표처의 설립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했다. 게다가 중국이 한국에 진출한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경쟁력이 부족 하로 인해 한국 현지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압력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작은 부분의 기업들은 현황에 만족하고 심지어 많은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

43) 왕유, "북경올림픽 이후 한중 무역활성화 방안", 경일대학교, 2008년. p.67

려고 한다. 이 현상은 한국 정부가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특혜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발전하기 어렵고 성공한 사례 중에 대부분은 한국 기업과 공동하게 완성된다. 그리고 상관습, 언어, 복잡한 비자 수속 등도 어느 정도 중국 대 한국 투자에 방해가 된다.

상호 투자의 산업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 분석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주로 방직업, 전자 등 노도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되었으나 보험,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산업의 과도한 집중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지속적인 발전에 불리하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기술집약적인 기업을 설립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선진한 기술을 흡수하지 못하였다. 단순한 가공을 통해 가공비를 벌고 이윤 및 발전에 제한이 있고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에도 불리하다.

2) 투자 건수의 둔화 추세

최근 몇 년간의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투자액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건수에서 둔화 추세를 보일 수 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외자 투자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인 통합, 기술 향상 및 시장경제체제의 촉진에 도움이 되는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8년“양세 일체⁴⁴⁾”의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하고 “산업특혜를 주된 것으로 여기고 지역특혜를 부차적인 것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중국의 외자 이용 전략이 질을 중심하는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둘째, 임금의 상승 및 위안화의 절상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방해가 된다.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통한 기술유출이 기술 우위가 있는 한국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를 하고 있다.

44) 양세 일체(两税一体): 두 개의 법률규정을 하나의 소득세법으로 통합시켜 내외 기업을 세율에서 차별 없이 대함을 의미한다.

제2절 한·중 교역분쟁의 대응방안

1. 중국의 대응방안

1) 중국 교역구조의 조정

현재,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주로 자원 집약적 및 노동집약적인 상품 등의 전통 상품을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의 부가가치 및 기술함량이 낮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다. 20여년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중국의 가공 무역은 이미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되었다.

대한국 교역구조를 조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먼저 무역 범위를 넓히고 수출하는 상품의 다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저부가가치 및 기술함량이 낮은 상품보다는 고부가가치가 및 기술함량이 있는 상품을 한국으로 수출이 증가해야 한다. 수출의 상품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양으로 승부” 하던 것에서 “품질로 승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보장할 수 있다.⁴⁵⁾

2) 중국 기업의 대한국 직접 투자 격려

한·중 양국 간 교역 불균형의 상당한 부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빠른 속도로 증대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실력이 있는 기업들이 나가서 대한국 투자를 증대를 통해 양국 무역불균형을 감소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진출 전략’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의 민영 기업, 중소기업의 자본 및 기술력에서 큰 발전으로 인해 대한국의 직접투자를 격려해야한다. 대한국 투자와 동시에 기술의 추진 및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결합해야 한다. 중국 기업이 한국의 기술인재를 흡인하고 한국의 기술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한국에서 연구 및 개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45) 이경, “한중 무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10년 8월. p.38

3) 투자환경의 개선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한 투자 환경, 편리한 수속 및 긴장한 절차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직접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공항, 항구, 도로 정보 및 통신 시설 등 기초시설 건설의 강화다. 또한 법률이나 법규, 정책의 완화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리제도 및 공평한 정책 환경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대외 개방과 국내 발전의 요구에 따른 외상투자의 법률 법규, 정책을 연구 제정한다. 외국인 투자의 심사허가절차를 간략화하고 규범화 하고 정부 행정능력을 제고하여 양호한 발전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외상 서비스 기구를 설립하여 중국에서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인재의 제공, 중국 정부는 인재의 양성을 통하여 중국에서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인력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제3산업, 즉,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이 WTO 가입 후 금융, 무역 소매, 도매 등 서비스 산업을 어느 정도로 개방했지만 아직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의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46)

4) 중국 기업의 행위의 규범화 및 반덤핑의 예방

중국 정부와 기업은 반덤핑을 예방하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하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하고 상품 품질로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재무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기업은 완비한 영업 자료를 보존하며 일단 반덤핑조사가 발생하게 되면 응소 자료를 곧바로 제공 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이익을 보호한다. 중국 수출기업들이 한국에서 어떤 상품은 한동안 잘 팔리는 것을 보면 그 상품은 대량 생산하고 수출한다. 이로 인해 중국 수출기업들은 한국에서 가격전쟁을 야기하였고 한국 측은 이 상품이 한국에서 가격이 낮아서 중국한테 반덤핑을 취하게 되었다. 이런 가격전쟁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가격전쟁을 피하도록 한동안 어떤 상품의 과다수출을 하지 말고 공동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47)

46) 白燕, <韩国对华直接投资对中韩贸易的影响研究>, 北京工业大学, 2009. pp.50-56

47) 서문지, “한중 무역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09년. pp.68-72

2. 한국의 대응방안

1) 중국정부와 호혜적인 발전 추구

수교 후 19년간의 한국은 중국과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에 치중해 왔으며, 경제, 산업위상에 있어서 한국이 어느 정도로 우위가 있었다.

한·중 양국 수요 이래 양국의 지도자가 서로 부단히 방문하여 이해의 폭도 넓혀왔다. 2008년부터 양국 관계를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 장기적으로 양국은 전략적인 협력관계의 건립을 통해 양국 무역관계가 더욱 높은 단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심지어 세계경제에도 이로울 것이다.

2) 한국 무역구조의 조정

첫째, 중국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의 수출상품은 전기전자, 화공제품 등을 위주로 한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및 기술력이 높은 상품보다는 중국시장에서 필요가 급증하는 상품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중국으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분야 수출을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국 기업의 기술력의 제고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국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졌다. 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둔화 추세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시장에서 수출 마케팅 강화 및 수출전략을 수립의 필요성이 높다.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는 현지 판매, 유통 네트워크의 구축과 마케팅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본사도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마케팅 노하우, 자금, 인력자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무역장벽의 개선

한국의 관세 장벽에서 이미 중국산 상품에 대해 일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농산품에 대해 조정관세 및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⁴⁸⁾ 비관세 장벽의 경우 한

48) 서문지, “한중 무역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09년. pp.75-78

국의 엄격한 위생과 식물위생조치는 중국 농산품 및 수산품의 한국으로 수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4) 중국의 서부 대개발에 참여

중국의 서부 대개발전략⁴⁹⁾은 한국의 수출확대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별히 중국 서부 외상들이 관심이 가지는 농원, 농업 등 우위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장 진입 제한을 취소한다. 또한 중국서부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자원을 개발하고 기초 시설의 건설 등조치를 실시한다.

중국 산업구조의 조정에 따른 세수, 신용대출 등 특혜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사업, 통신 설비 등 기술 산업 및 농업 가공, 농원, 교통 등 기초시설의 건설 분야에서 직접투자를 하여 기술무역의 발전을 시킨다.

3. 한·중 공동협력 대응방안

1) 한·중 기술무역의 추진

양국 정부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기술연구소를 합적으로 설립하여 첨단 기술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한·중 간 합자로 첨단기술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첨단기술의 발전을 추진하고 전문가들의 교류를 강화하여 과학 연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화학, 자동차 등 자본집약공업 등 분야에서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중국은 항공우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기술협력의 잠재력이 큰 점을 보이고 있다. 한·중 양국 간의 기술 무역의 추진하고 공동적으로 신제품을 개발 연구해서 양국 상품무역의 발전도 추진할 수 있다.

2) 'win-win'의 수립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경

49) 서부대개발전략: 중국은 2000년 1조1206억위안이 들어가는 서부대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서부개발은 중국의 중서부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부연안의 자본을 연계해 대륙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21세기 주요 국가전략 사업이다.

제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양국 경제관계가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교류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도가 심화될 양국의 경제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분업체계와 호혜 협력적인 구조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앞으로 한·중 경제체계를 안정적인 관계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의 경합관계를 최소화 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발전시켜 ‘win-win’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50)

3) 전자무역시장의 확대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전자 상거래도 국제무역 방식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중 정부는 양국의 기업들에게 무역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무역시장을 건립해야 한다. 또는 한국 정부도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양국의 경제 상태, 기업의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양국 무역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4) 한·중 FTA의 체결

(1)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

① 양국 무역의 상호 보완성

첫째, 양국 자원의 상호 보완성. 한국 국토가 좁고 경지면적이 적고 농산물이 풍부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안목에서 해결하기 위해 원료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기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자원을 얻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일이다. 51)

둘째,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 한국은 점진적으로 구조조정과 기술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처음에는 주로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했었지만 점차 노동비용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최근에 와서 전자공업, 자동차 등 고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확대 이전되었다. 이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해외 이전을 촉진시켰다. 반면 중국에서 값이 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 산업의 해외 이전의 수요를 충족시킬

50) 이금, “한중간 무역마찰의 현황과 대응 방안”, 청주대학교, 2008년. pp.70-75

51) 임용남, “한중 FTA 의 주요쟁점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2010년. pp.54-60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분석해보면, 노동 집약형 공업은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이어서 이러한 중국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자본, 기술 및 선진화된 관리 능력도 이전되면서 중국의 상품의 품질이 향상하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기술의 상호 보완성. 한국은 이미 신흥공업국가로서 공업화 정도가 중국보다 높으며 비교적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제조업부문에 견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전술한 업종이 한국에 미치지 못하여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로써 양국은 협력 체제가 구축된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

② 시장 안정성의 확보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계속 무역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체결하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FTA의 체결을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간의 교역분쟁이 해소와 일반적 보호무역조치 역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한국,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하고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52)

③ 정책 외교적 이익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중의 하나인 중국과 FTA의 체결을 통해 정책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한·중 간 FTA가 매개가 되어 한·중·일 3국간 FTA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커지고, 한반도의 안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 한·중 FTA의 주요 쟁점

① 한·중 농업부문의 쟁점

한·중 농산물 무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반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제조업과 달리 산업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약 없는 FTA 체결시 일방적인 농업 수출확대 및 축소

52) 조우권, “한중 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2010년. pp.72-75

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동북부지방은 한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가격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가 있다.

② 제조업 부문의 쟁점

한·중은 기술력 격차에 따른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FTA 체결로 한국의 경우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 및 생산 공정으로 자원 집중이 유도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저부가가치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의미하여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 실업의 증가 등 경제적과 사회적 비용이 FTA 추진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체결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대중국 투자의 급증에 따라 한국 국내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FTA를 통한 대중국 직접 투자의 확대가 국내 산업공동화가 아닌 산업고도화의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53)

③ 서비스 부문의 쟁점

서비스업 분야의 협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업을 포괄해야 되어, 정부기능 집행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특히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전기, 정보통신, 의약품, 의료기기의 상호 인정, 기술자격 인정, 환경협력, 공동 분쟁해결기구 설치 등이 한·중 FTA의 주요한 이슈로서 검토될 수 있다. 54)

(3) 한·중 FTA의 추진 과제

우선 한·중 FTA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양국 지도자가 서로 빈번히 방문하여 우호협력관계를 더 나아가 강화하고 한·중 FTA를 위하여 조화로운 우호적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53) 김영미, “한중 FTA 의 바람직한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7년. p.82

54) 류명명, “한중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08년. pp.75-77

다음, 민감 분야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중국과 FTA 추진에 따른 농업 및 노동 밀접약적 제조업 등 민감 산업 부문의 피해 및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해 한·중 FTA의 체결이 각 산업 부문의 피해 및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해 한·중 FTA의 체결이 각 산업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

셋째, 양국이 다양한 협력의제를 발굴해야한다. FTA는 양국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경제적 및 정치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관세율 인하와 무역원활화 등 무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수준 높은 FTA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투자, 기술협력, 정책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의제를 포함하고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의 체결은 정부의 힘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부족하고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기업은 확대의 필요가 있다. 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FTA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국 FTA의 구축을 앞당기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4) 한·중 FTA의 전망

산업별로 한·중 FTA의 체결이 자동차, 철강, 중화학제품 등은 유리하지만, 농수산물, 의류, 목재 등 중국이 장점을 가진 저부가가치 산업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저가농산물로 농수산물 적자가 102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의 중국투자가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실업도 증가할 것을 전망된다.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에 완제품 및 농수산물 수출하는 구조이다. 한·중 FTA의 체결을 통해 중국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며 한국이 대중국 중간재, 부품 수출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매출 및 수익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무역확대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양국의 기술격차 해소, 대 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규모 및 대 중국 무역적자가 모두 확대되어 한국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FTA정책을 통해 수출 및 투자도 지속적인 세장을 유지하고 에너지 자원을 확보한다는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정치 외교적인 영향력

을 확장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한·중 FTA의 체결은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 북한, 중국 3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의 전망과 한·중 무역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한·중 양국 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FTA의 체결이다.

제6장 결 론

중국은 경제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까지 한국에게 주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핵심적인 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중 무역관계의 변화는 기존에 한국이 누려왔던 중국특수의 약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산업의 고도화는 전통적인 대중국 수출품목의 둔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및 생산공정 상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새로운 수입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성장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대로 이어져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을 압도하려는 전략보다는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서면서 중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유지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산업발전 속도 및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맞춰 연구 및 투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이전 등을 통해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 한국 기업의 수출전략을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적극 전환하는 한편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한·중 FTA의 체결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 FTA의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동북아의 분업구조는 그 자체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역외수요 의존성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외 국가들에 대해 이 지역의 경제협력이 지역 블록을 지향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곤란하며 또한 그러한 움직임이 아직은 가능한 단계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중 간의 FTA

는 EU나 NAFTA의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보다는 글로벌 차원의 무역자유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적극적인 개방논리를 정책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역외 국가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중국과의 FTA와 함께,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도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외국가에 대한 고려는 가장 중요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동남아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경제적 비중은 낮지만 동남아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커다란 생산 네트워크에 이미 편입된 상태이며, 이 두 지역이 결합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남아에서 현재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 의존적인 무역 및 투자 편중성을 부분적으로라도 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과의 FTA 논의에 병행해서 ASEAN과도 FTA, 혹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중 FTA라는 사안이 관련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국, 혹은 무역 상대국에 미칠 커다란 파장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나 양국간 경제체제나 경제발전단계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 FTA가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전에 불가피하게 여러 단계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분위기의 조성과 상호 이해의 증진,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한 활발한 접촉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업계나 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교류나 협력의 촉진을 위한 중간단계의 제도적 장치로서 양국간 정부차원의 협의 채널의 가동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나 각료회의는 ASEAN+3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정부간 협의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 농림부, “WTO 무역 분쟁-농산물분쟁사례를 중심으로”, 2008,
- 운도일, “중한 무역 발전 방안”,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유진석, “한중 수교10주년 회고와 관세삼성”, 경제연구소, 2008,
- 이문형, “중국 대한국 수출분석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9
- 임영모, “중한 무역고조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최근 한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조사보고서”, 한국무역 협회, 2009,
- 양평섭,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이학규, “중국무역론”, 두남 2005,
- 정영금, “한중 수출입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4.12,
- 김주영, “중국 대한국 투자 현황과 특지”, 「수은해외경제」 2004
- 중국해관총서 “중국의 대외무역현황”, 대외무역출판사, 2005
- 정황우 “한중 간 교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03
- 이성봉, “한중FTA 사전점검-투자분야협상이 왜 중요한가” Chonadia Journal 2006.06
- 김성철, 「한중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08
- 외교통상부, “중국,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 2009년.
- 이검, “한중 무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10년
- 요수취, “한중 무역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09년.
- 김짓수, 원종학, “할당관세 제도의 운용성과 향후 운용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년.
- 최창열, “한중 무역 제도의 비교 연구-통관과 관세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2008년.
- 왕유, “북경올림픽 이후 한중 무역활성화 방안”, 경일대학교, 2008년
- KIEP ‘2006년 대중 무역 흑자 감소의 원인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03

서문지, “한중 무역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09년
 임용남, “한중 FTA 의 주요쟁점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2010년
 조우권, “한중 FTA 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2010년
 김영미, “한중 FTA 의 바람직한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7년
 류명명, “한중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08년
 허봉, “한국의 세이프가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7년.

<중국문헌>

南鐘鎬 “韓中經濟交流的現狀及前景”, 当代韓國, 2003
 李琴, “中韓貿易摩擦的現狀和對應方案”, 清州大, 2008年
 朴光姬, “中韓雙邊貿易的發展及問題”, <当代亞太>, 2007년.
 新華網, “我國將調整部分商品關稅稅率”, 2007년5월
 王曉璐, “中韓貿易逆差的成因及策略研究”, 中國海洋大學, 2007
 趙淳, “韓國的經濟發展”, 中國發展出版社, 2007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國別貿易投資環境報告 2007” 人民出版社 2007
 白燕, “韓國對華直接投資對中韓貿易的影響研究”, 北京工業大學, 2009

<인터넷 자료>

<http://news.xinhuanet.com>(중국신화신문)
<http://www.mofcom.gov.cn>(중국상무부)
<http://www.cacs.gov.cn>(중국무역구제협회)
<http://www.customs.gov.cn>(중국관세정부)
<http://www.ktc.go.kr>(한국무역위원회)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http://www.standard.go.kr>(무역기술장벽정보)

<http://www.newsva.co.kr>(아시아경제신문)

<http://www.stats.gov.cn>(중국국가통계국)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466>(네이버 백과사전)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s Countermeasures

Xuan Zhao

(Dept.of International Trade)

The overall business environment in China has also changed greatly recently. China has developed to be the largest exporting country and the trade restriction against China such as anti-dumping duty has increased. The structure of export goods and trade policy has also changed in China. China prohibited some of the process trade which consume large amount of energy and br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China is reinforcing a selective trade strategy which will enforce stricter control low value-added and also restrict exports in sectors that could lead to trade dispute.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changed. As a member of WTO China has made various strategic changes in its trade, foreign investment, overseas invest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policies. Such developments have influenced the investment in China and brought many changes i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especially in terms of trade.

China has tightened control over its exports in response to increasing trade pressures and calls to reevaluate the yuuan as a result of the continuous expansion of its trade surplus, as well as address the problem of excess liquidity in the domestic market.

To achieve effectiv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e're got to do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maintain the economic gaps between two countries to achieve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Second, enter into the domestic market in China to compete effectively.

Third, find the way to maintain the complementary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two countries.

Fourth, diversify the import partners such as foreign owners company.

Fifth, strengthen the effort to diversify the export market.